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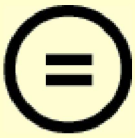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신문방송학석사학위논문

근대 한국의 언문일치운동 연구

2017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LIANG LIYE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근대 한국의 언문일치운동 연구

지도교수 김영환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LIANG LIYE

LIANG LIYE의 신문방송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2월

주 심 문학박사 남인용 (인)

위 원 철학박사 김무규 (인)

위 원 철학박사 김영환 (인)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4

1. 언문일치란 ····· 4

1.1 '언문일치' 개념이 등장배경 ····· 4

1.2 언문일치의 개념과 의미 ····· 6

2. 근대 한국의 언문운동 ····· 9

2.1 언문운동과 언문정책의 배경. ····· 9

2.2 언문운동의 전개 ····· 11

2.3 한국의 언문운동 ····· 12

2.3.1. 문자체계의 확립을 위한 노력 ····· 12

2.3.2. 표기법 정비를 위한 노력 ····· 13

2.3.3. 어휘정리와 사전편찬을 위한 노력 ····· 17

2.3.4. 한글 및 표기법 보급을 위한 노력. ····· 22

3. 근대 한국의 언문일치운동 ····· 22

3.1. 한국의 언문일치운동 ····· 22

3.2. 국문운동 ····· 28

4. 한국의 언문일치운동의 성립과 전개양상 ····· 31

4.1 한국에서의 언문일치운동 이전의 문체들의 존재양상 ····· 31

4.2 언문일치운동의 발단과 국한혼용문 ····· 33

4.3 언문일치운동의 확립과 숙어문운동 ····· 36

5. 국어 • 국문운동의 양상과 특징 ····· 38

5.1 국어 국문운동과 문체의 발달 ····· 38

5.2 정서법의 확립과 국어 • 국문정리운동 ····· 43
5.2.1. 이봉운의 『국문정리』 ····· 43
5.2.2. 윤치호의 『옥편편찬』 ····· 44
5.2.3. 주시경의 『국문론』 ····· 44
5.2.4. 국문연구소의 『국문연구』 ····· 46
6. 한글전용 vs 한자혼용 ····· 46
6.1. 한자 혼용, 꼭 필요한가 ····· 47
6.2. 한자폐지의 남은 문제 ····· 49
6.3. 한자병기론과 한글전용론. ····· 53
Ⅲ. 결론 ····· 55
참고문헌 ····· 58

A Study on the Movement of Writing and Speaking in Modern Korea

LIANG LIYE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consistence of speech and writing movement is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social development. In the modernised social development of South Korea, the movement has not only just heavily impacted o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it's people, but also poses a far reaching effect on the daily life and the society.

The consistence of speech and writing movement in South Korea can be dated back to the late 1910. We can conclude the intention of the movement with one simple phrase "to speak as you write", which means you have to write exactly as you speak. Up until now, the word we speak and the words we write are the products of such movement.

In the national modernisation development process. The consistence of speech and writing movement is a wide spread phenomenon. The Vernacular Movement in South Korea and similarly the Vernacular Chinese Movement in China. Similar movements also took place in Japan and the western countries. In the modernisation development, all these movements played an irreplaceable role in the countries and influenced it's citizens and the societies.

This article mainly uses materials such as newspapers and magazines to gain a more concrete understanding and to analyse the consistence of speech and writing movement in South Korea. Hence, understood the significance of the movement to the history and the social development process.

Ⅰ. 서론

언문일치운동이 한국에서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1910년대 후반이었다. 당시의 언문일치운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글로 적는 말(文語)을 입으로 하는 말 (口語) 에 일치시키려 했던 운동을 가리킨다. 그러한 운동을 한 결과 현재 우리가 말하는 언어란 말과 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시의 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글 중심보다는 말 중심의 언어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전의 사람들은 글 중심의 언어관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문일치의 문장은 근대화 과정에서 행해졌던 언문일치 운동의 결과를 취해진 것으로서 글(文)보다는 말(言) 중심의 언어관에 입각해 확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언문일치운동은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한국과 중국에 시야를 한정해 보더라도 근대화운동, 국문운동, 백화문운동 등 근대 국민국가의 의식을 형성하는 주요한 기점에서 언문일치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언문일치란 입말에 따라 글말을 통일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것의 핵심은 보편성을 띠는 문자(한자)보다 특수성을 띠는 말(음성)을 우위에 둠으로써 언어에 민족적 정체성을 투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음성중심주의적 경향은 한자공동체라는 균질적인 세계에 서구라는 타자가 개입되는 것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

言文一致 [1] 는 言語生活(언문생활)에서 文字生活(문자생활)과의 一致를 나타내며, 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말하듯이 쓰는 것이 원리이다. 그 원리에 따라 말이라는 것이 투명한 기호가 되고 그 투면 한 기호 가운데 관념이 있고 사상이 있고 내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言文一致 의 이상형(理想型)이다. [2]

국민들의 문자생활을 방향 짓는 문자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말과 글은 가장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정보소통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인식을 지배하는 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자정책은 단순히 문자사용에 관한 지침이라는 미시적 차원을 넘어, 역사의식과 자기정체성 그리고 미래의 국가 비전 등을 함께 포괄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족국가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언어(국어)가 있어야 하며 그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정비된 文字體系와 통일

1) 言文一致' 용어의 시작은 일본의 양학자 칸다 타카히라(神田孝平, 1830~98)의 저서 文章論ヲ讀ム(문장론을 읽음)(東京學{士會員 雜誌17권 1호, 1885년 2월)에 처음 등장 한다.
2) 前田愛, 『文學テクスト入門』, ちくま學芸文庫, 1996.

된 表記法이 있어야 한다. 근대화의 요체는 관점에 따라 인견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산업화에 의한 자본주의와 萬民平等 사상에 입각한 시민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산업화에 의한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여야 하고 시민적 민주주의가 이룩되려면 광범위한 국민교육이 심시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국어와 통일된 표기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정보의 유통이나 국민교육이 모두 言語와文字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상정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自國의 語文 問題(언어와 문자 그리고 표기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민간은 민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 민간 차원의 관심은 어문정리 운동으로 정부 차원의 관심은 어문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글 전용의 개념을 말하기에 앞서 '한글과 우리말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글이 우리말을 적기 위해 고안된 글자임에는 틀림없지만, 한글 자체가 우리말인 것은 아니다. 우리말(한국어)은 우리 민족의 형성과 연륜을 함께한 민족 언어이고, 한글은 우리말을 표기할 마땅한 문자가 없어 중국글자(한자)를 오랜 세월 빌려 쓰다가 세종대에 이르러 비로소 고안해 낸 문자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곧 말은 음성 체계인 데 비하여 글자는 시각적인 부호 체계라는 이야기다. 한글 전용체란, '표기, 즉 앞에서 언급한 시각적인 부호체계에서의 한글만으로 쓰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한글 전용은, '한자무용론'은 아니다. 한글 전용론은 한자가 쓸모없다거나 한자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대중적 문자생활을 한글전용으로 하자는 것이다. 또한 한글 전용을 '고유어 전용론'과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글 전용은 한자어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가능하다면 고유어를 살려 쓰는 것이 좋겠지만, '비행기'를 '날틀'로 바꾸는 것과 같은 억지스러운 한자어 바꿔 쓰기를 권장하는 것이 한글 전용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글 전용'은 글자살이를 '한글만으로' 하자는 것이지 말살이를 순우리말(토박이말)로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가령, '飛行機'로 적지 말고 한글로 '비행기'라고 적자는 것이 바로 한글 전용 운동이다.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인식이 확대 되면서 어문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가되었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단일민족 국가이고 단일 언어를 사용해 왔었기 때문에 소수민족 소수언어의 문제라든가 공용어 문제 언어의 통일 문제 등은 없었다. 물론 단일 언어를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른 방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표준어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었겠으나 근대화의 초기에는 표준어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이는 아마도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된 모든 한글문헌들에 사용된 말이 서울말이었고 시조나 가사와 같은 문학 작품을 짓는데 쓴 말이 서울말이어서 문어의 경우에는 어는 정도 서울말로 표준화다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趙東一 1991). 물론 지방에서 간행된 문헌 중에는 방언이 반명된 문

헌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울말을 기본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방언을 반영하는 정도의 것이었다. 그리하여 근대화의 초기에는 주로 문자사용의 문제 문자체계의 정비 및 표기법 통일 문제가 언문문제의 핵심을 이루었다. 즉 국어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국문 문제가 핵심적인 관심의 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신문 몇 잡지 등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자료에 사용된 '言文一致'의 사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언문일치'가 지닌 의미를 밝힌 연구이다. 또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행해졌던 언문일치운동은 구체적으로 서술했고 그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言文一致운동을 분석하여 이 운동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Ⅱ. 본론

1. 언문(言文)일치란

1.1 '언문일치' 개념이 동장배경·

언문일치란 대화에서 실제로 쓰는 말과 산문을 쓸 때 글로 적는 말이 일치함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언"(言)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뜻하고, "문"(文)은 문자로 표기된 글을 뜻하며, 언문일치는 글을 적되 말과 같이 적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이다. 이에 따라 언문일치체는 곧 口語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한국에서 "언문일치"라는 것이 문제가 된 때는 갑오개혁(1894 년) 시기이다. 갑오개혁 이후 『독립신문』 등의 신문●잡지가 앞장서서, 말과 문장의 일치를 주장하며 국●한문 혼용 운동을 벌인 것이 이른바 언문일치 운동이다.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으나 이후 개화기까지 4세기 동안이나 국어는 한글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한문체, 현토체, 이두 문체 등의 언문 불일치 양상을 띤다.[3] 갑오개혁 이후 한글은 비로소 國字의 위치에 오르고 고종의 칙령 제1호 몇 제86호에 의해 국문●국한문이 공문서에 채택된다.[4] 곧 갑오개혁 이전까지는 공문서 등 공적인 문장에서 한자 전용의 관습으로 인해 실제 말과 문장이 유리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언문일치 운동을 벌이면서 한문으로 구문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을 한글 전용이나 국●한문 혼용의 문장으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이때 등장한 "언문일치"는 한편으로는 표기 도구로서의 문자종류의 문제였고, 또

---

3) "한문체"란 중국어 문장인 한문 문장을 말한다. 중세시기에 우리 선조들의 인식에는 훈민정음이라는 우리 문자가 있었음도 불고하고 "문장은 곧 한문"이라는 고정 관념이 있었다. "현토체"란 한문 문장에 우리말 조사, 어미를 붙인 것으로, 토를 제외하면 순 한문 문장이나 다름없는 문장이다.(예:天下에 豈有成敗리요, 待人而已라.悠悠萬事가 無一非聰命於人而後에 有所謂成者하니 - 만해의 『불교유신론』. "이두문체"란 우리말 구성에 맞게 한자를 배열하고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붙인 것이다. (예: 故로 自由를 得하기 爲하여서는 生命을 鴻毛視하고 平和를 保하기 爲하여는 犧牲을 甘始當하느니 此는 人生의 權利인 同時에 또한 義務일지로다 - 만해의 『조선 독립의 서』. 심 재기(1999)에서는 국문체의 형성 과정을 "한문체→제1 중간문체→제2 중간문체→제3 중간문체→국문체"로 보고 있다. 제1 중간문체는 한문 문장에 토만 붙인 것이고(위의 『불교유신론』 문장), 제2 중간문체는 어느 정도 우리말 구성을 보이나 한문 어구를 그대로 쓴 것에 토를 붙인 것이고, 데3 중간문체는 한문의 통사적 구조는 간간이 잔영만 드러내고 거의 국문체로 순화된 것이다 (위의 <조선 독립의 서>문장). 제2 중간문체의 예는 다음과 같다: 佛이 言하시되 善男子야 譬컨대 貧家에 珍寶가 有하되 寶가 能히 내가 此가 在하다 自言치 못하는지라(<불교대전>).

4) 이때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국문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은 박 영효가 고종에게 <內政 改革에 대한 建白書>(1880)의 8개 조항 중, 제6항에 잘 드러난다: 六 敎民才德文藝以治本 / 先敎人民以國史及國語國文事 (下敎本國之歷史文章而但敎淸國之歷史文章故人民以淸爲本而重之至有不知自國之典故者此可謂拾本取末也) 。

한편으로는 글로도 한국어 문장을 표현하자고 하는 문자언어의 문제였다. 이것은 한국이 한자와 한문에 의존해 온 특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밟아야 할 두 가지 필요한 과제였다. 그런데 이 중 언문일치를 이루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후자의 문제였다. 이른바 한문투를 벗어나서 우리말다운 문장을 쓰는 것, 그것이 언문일치 주장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한문투를 벗어나서 언문일치체를 이루는 문제는 우리의 문장 역사 중 공적인 계층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분의 몫이 있다. 이것은 한글로 우리말을 적지 않고 한문 문장이나 한문 문장에 토를 붙인 이두 문장을 쓰던 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말이 아닌 한문을 적던 것을 한국말 문장으로 쓰자고 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문장 역사상 고대소설이나 신소설, 옛날 편지, 일기글, 언해문, 소품문 등 우리말 문장으로 적는 글에 해당되는 개념은 아니었다. [5] 그 문체가 의고체적이든 어떻든 간에 한문체가 아닌 우리말을 적던 계층에 대해서는 이 언문일치라는 것이 적절치 않은 용어였다.

왜냐하면, 중세 시기부터 이어져 온 과거의 우리 문장인 일기문, 편지글, 고대소설, 신소설 등 창작 장르에서는 그야말로 “언”과 “문”이 일치하였고, 심지어는 더욱 의고체적인 언해문 까지도 한문 문장이 아닌 우리말 문장이었으며 “언”과 “문”이 불일치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문일치”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말을 적고자 했던 우리말 문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말을 두도 서도 한문체를 사용했던 일부 문장의 문제였으면, 이것은 개화기를 지나 1920년대에는 거의 정상을 회복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즈음하여 다시 새로운 개념의 언문일치가 등장한다. 문인들에 의하여 “구어체 문장 운동”이 일어난다. [6] 그것은 곧 구어체와 문어체의 일치라고 하는 한국말 내부에서의 문체의 문체로 대두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구어체 문장은 곧 언문일치체라고 하는 개념이 설립되었고, 현대까지도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우리말 어휘 사전에나 국문학 사전에서도 통용되는 개념이 것이다. [7]

---

5) 여기서 소품문이라 하는 것은 조선 후기 이 덕무, 박 지원, 유 득공 등에 의해 쓰여진 글들을 말한다. 우 정권(2004)에서는 "소품문이 갖고 있는 신변잡기적이며 일상적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내면 감정의 솔직한 표현 등의 특성이 1900년대 단문(短文)이나 보통문(普通文)이라는 형식으로 계승됐다"고 주장한다.

6) 광무 연간 (光武年間 : 1897~1907)에 대두된 국문 정리 • 한글 사용 운동과 1907년에 설치된 국문연구소 발족에 즈음하여 선각자와 문인들 사이에서 글에서 국문체를 써야 한다는 자각이 일었다. 최남선, 이광수에 의해 신문장 건립 운동이 의식적으로 전개되었으면, 이를 이어 김동인이 시동인지 <창오>를 중심으로 구어체 문장을 확립한 것으로 문학사에서 정리되고 있다 (대명사 ′그′의 사용, 과거체 ′-더라′를 현재체 ′-ㄴ다′로 바꾼 것 등을 공로로 들고 있음).

7) "언문일치"와 "언문일치체"에 대한 어휘 사진, 백과 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 모두 언문일치는 글의 문장이 구어체를 따라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구어체 문장 운동: "말과 일치하는 글, 즉 언문일치" 또는 "말을 중심으로 한 글, 즉 언주문종(言主文從) " 및 "한글이 주가 되고 한문이 이를 보조하는 글, 즉 국주한종(國主漢從) "을 쓰자고 내세운 운동이다.

1.2 언문일치의 개념과 의미

근대의 韓國에 있어서 言文一致이전의 言語生活가운데 音聲言語와 文字言語가 일치하지 않아 二重의 言語生活을 해온 점에서 言文一致의 必要性이 생겼다. 言文一致는 言語生活에서 文字生活과의 一致를 나타내며 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말하듯이 쓰는 것이 원리이다. '言文一致'란 보통 '글말 = 문(文)'이 '입말 = 언(言)'과 틈이 벌어지지 않음을 가리킨다. 물론 입말과 글말 사이에는 얼마간의 거리가 존재한다. '말하는' 행위와 '쓰는' 행위는 그 수단, 양식,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문 대신 국문을 사용하는 것은 곧 한문의 전래 이래 시작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사이의 괴리가 극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漢文은 事物을 形容ᄒᆞᄂᆞᆫ圖式이니 義와 音이 異ᄒᆞ야 通曉ᄒᆞ기 至難"[8]하고, 국문은 "語之記也니 文卽語也오 語赤文也라"[9]는 당시 논설의 한 구절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이때 국문론과 국문운동이 종교적●정치적 의도에 의해 국문 해독층의 포섭을 위해서 아울러 자강●독립을 위한 대중 계몽의 수단으로 사용된 만큼 국문을 사용하는 주체의 지식과 경험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개화기, 애국계몽기의 지식인들은 국문의 사용이 가져다줄 수 있는 구체적 결과에만 주목했을 뿐 말을 글로 표현하는데 따르

언문일치: 실제로 쓰는 말과 글로 적은 말이 일치함.

언문일치체: 언문일치의 취의 (趣意) 로 쓰여진 문체. 구에체(口語體).

<표준 국어대사전> (국립 국어연구원)

언문일치: 실제로 쓰는 말과 그 말을 적은 글이 일치함.

언문일치체: 실제로 쓰는 말과 그 말을 적은 글이 일치하는 문체.

<우리말 큰사전> (한글 학회)

언문일치 = 말글일치

말글일치: 현대의 입말체와 글말이 일치하는 문체.

<네이버 영어사전 백과사전>

언문일치체: the identity [unific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언문일치체로 쓰다: write in colloquial style.

8) 정대림, 한국 고전문학비평의 이해(태학사, 1991), 407쪽 이하 참조

9) 이승교, 「國漢文論」,「서북학회월보」, 1908. 6 p.21.

는 사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듯하다.

이 가운데서도 신채호의 경우 “或漢文々法에 國文吐만 加ᄒᆞᄂᆞᆫ者도 有ᄒᆞ며 或國文々勢로 下ᄒᆞ다가 突然히 漢文々法을 用ᄒᆞ고 或漢文々勢로 下ᄒᆞ다가 國文々法을 用ᄒᆞᄂᆞᆫ者도 有”[10]하다며 당시의 혼란스러운 문체를 정리하기 위한 문체의 통일을 주장하기도 한다. 주시경 또한 “불가불 한문 글ᄌᆞ의 음이 죠션말이 되지 아니ᄒᆞᆫ것은 쓰지 말아야”[11] 한다고 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소위 국한문 혼용체가 한문에 국문으로 토를 단 것이었고 국문체라는 것도 이것을 그대로 국문으로만 옮겨 놓은 것이 많았음을 비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석영이나 주시경 등 초기 국문연구자들이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음의 고저•장단, 표기법, 문법적 구조 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앞서 주시경이 밝혔던 문체의 혼란에 따른 우려도 단지 우려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 듯 하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문체는 대강, ‘한문(체)•국한문(체)•국문(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애국 계몽 단체들의 학회지는 이러한 문체의 혼란상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문체, 국한문(체), 국문(체)라는 세 가지 문체를 받들어 주는 지지 계층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한자 어휘가 현실적으로 우리들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1905년 통감부 설치 이후 공식화된 일본어 교육 때문이었다. 기존의 보수적인 지식인들이 지식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속시키려는 발상 속에서 지지하는 한문체와 구체제의 변혁을 기도하는 개화파들이 자신들의 개혁의지를 널리 심기 위해 사용한 국한문혼용체, 그리고 소외된 하층민에 대한 선교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선교사들과 기독교 계통의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국문체는 각각의 문체를 떠받치는 이해관계로 인해 서로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갈등을 겪어야 했다.[12]

예컨대 유길준이 『서유견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文字를 畧解ᄒᆞᄂᆞᆫ者라도 易知’[13]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단지 어순만을 우리말에 맞게 바꾸었을 뿐 기본적으로는 한문에 가깝다. 특히 전통적인 한문구에 조사나 어미를 붙여 쓰는 정도의 국한문체는 일상적인 언어 형상의 실체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국한문(체)은 철학적•경세적(經世的) 사상과 논리를 전개하는 데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표현하는데 적당했을 것이다. 즉 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을 한문으로 남겨 둠으로써 중후한 격조•고전적위의(威儀)•정보성과 계몽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일상의 언어현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한편 국문체의 경우 『독립신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샹하 귀쳔이 모도보고 알어보기’[14] 위해 『서유견문』에서 보이

10) 신채호, 「文法을 宜統一」, 『대한매일신보』, 1908. 11. 7.
11) 주시경, 「국문론」, 이기문편, 『주시경 전집』(상), 아세아문화사, 1976, pp.15~16.
12) 이기문, 「국한문체와 국문체의 갈등」,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1970. pp.16~23.
13) 유길준, 「西遊見聞 序」, 『西遊見聞』, 東京 : 交詢社, 1985, pp.5~6.
14) 「논설」, 『독립신문』, 1896. 4. 7.

는 바와 같은 한문구(익은 한자어가 아니라)는 찾기 힘들다. 또한『독립신문』의 경우 '알어보기 쉽도록' [15] 띄어쓰기가 지켜지고 있는데 이는『서유견문』과 같은 국한문체보다 훨씬 대중에게 호소력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국문체의 경우 아녀자들이 주고받는 편지글투●가사●소설 등의 언문체에서 발달한 것인 만큼 사실의 전달이나 정서적 감응의 측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한문 또는 국한문이 지니는 논리적 심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 문장 형식●어조의 투어화로 일상의 언어 현상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신채호의 "或漢文々法에 國文吐만 加ᄒᆞᄂᆞᆫ者도 有ᄒᆞ며 或國文々勢로 下ᄒᆞ다가突然히 漢文々法을 用ᄒᆞ고 或漢文々勢로 下ᄒᆞ다가 國文々法을 用ᄒᆞᄂᆞᆫ者도 有"하다는 즉 당시 문체의 혼란상이 한 사람이 구사하는 문체에서도 나타난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국문 사용 론자들이 한문에 익숙한 까닭으로 한자를 병기하거나 혼용해 쓰지 않고서는 의미 전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정도로 한자어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국문체의 확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주시경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며 이광수가 한문의 전폐를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一朝에 斷行ᄒᆞ기ᄂᆞᆫ不可能ᄒᆞᆫ事" [16] 라고 한 것도 누구나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국문체를 확립하기가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문(구)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한글문체의 확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다. 한문으로부터 실제적인 국문체의 확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문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개화기●애국계몽기의 국문운동에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언문일치'로 향한 과정에 필요한 요건은 대강, 한문(구)이라는 관념적 인식체계로부터의 벗어남, 투어화한 수사법으로의 벗어남, 서술주체의 경험확대와 이에 따른 표현 능력의 신장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건은 대체로 안국선의『演說法方』(1907)에서 비롯되어 최남선의『時文讀木』(1916)을 거쳐 이광수의「무정」(1917)나 김동인의「약한자의 슬픔」(1919)에 이르는 과정에서 마련된 듯하다. 이인직 등의 신소설은 지난 시기의 편지글투●가사●소설에서 쓰이던 '~더라(라)', 설의형 어미 '~리오(냐, 가)', 형의 文語體 종결어미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으나 대화를 이끄는 투어로 '~가로되(曰)'가 사라진 대신 대화 부분이 독립된 문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은 보다 口語體로 가까워지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번다한 비유 ·반복 ·나열이 동원되고 문장의 길이도 길다는 점 [17]은 아직 口語體와는거리가 있음을 보이는 근거이다.

한편 서재필이 주도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대한자강회(1906)에서 활성

15) 『독립신문』, 앞의 글.
16) 李薺鏡,「國文과 漢文의 過渡時代」,『太極學報』21호, 1908. 5, p.18.
17) 이동희,『한국근대소설의 문체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에 통계조사로써 이인직 소설의 한 문장이 평균 95.7자, 김동인 소설이 31.7자임을 밝히고 있다.

화된 연설법이 산문화되는 양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안국선의『연설법방』(1907)은 연설의 유래와 유명한 연설, 그리고 연습방법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언문일치의 문체가 口語에 가까운 새로운 문체라고 할 수 있다면『연설법방』에 등장하는 연설문들은 문장의 길이가 짧아진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국한문체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예컨대 "余가 言코자 하되 言하기 不能함을 奈何오."[18]와 같은 문장은 좋은 보기일 것이다. 연설의 내용이 우화적인 수법으로 재현된 것이 바로「금수회의록」(1908)인데 이러한 작품 형식이 김필수의「경세종」(1908), 이해조의「자유종」(1910)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자유종』에서는 연설의 방식이 토론의 방식으로 바뀌어 나타나게 되는 것도 중요한 일면이라고 하겠다.[19] 연설은 글이 아니라 말이므로 원고를 쓰더라도 한문구가 들어갈 여지가 좁은 만큼 口語에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으므로 소설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분명히 언문일치로 이행하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최남선의「시문독본」은 범례 성격인 例言에서 밝히고 있듯이 '시문을 배우는 이의階梯'가 되기 위해 "옛 것을 모으기도 하고 새 것을 모으기도 하고 짓기도"[20]한 책이다. 스스로 "이 책의 文體는 過渡時代의 一方便"이라고 했듯이 국문(체)과 국한문(체)이 뒤섞여 있다. 그러나 몇 몇 글의 경우, 과거형 종결어미 '~ᄊᆞ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문장부호나 접속사가 사용되며 문장의 길이도 비교적 짧다. 또한 서술주체의 주관적인 경험과 수사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결국 범박하게 나마언문일치로의 접근으로 볼 수 있는 징후들은 김동인의「약한자의 슬픔」(1919)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2. 근대 한국의 언문운동

2.1 언문운동과 언문정책의 배경

어느 나라 어느 경우이든 語文運動과 語文政策은 당시의 時代的 背景과 관련을 가지기 마련이다. 어문운동이나 언문정책은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의 어문운동과 어문정책은 종래 우리의 문자생활을 지배해왔던 漢文을 國文으로 대체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 인식하게 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21] 이러한 인식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시대적 배경

18) 안국선.『안토니의 연설』,『금수회의록, 공진회, 연설법방』(범우사르비아문고 93), 1984, 범우사,p.172.
19) 권영민,『안국선과 개화기 지식인의 환상』,『한국 근대문학과 시대정신』, 문예출판사, 1983, pp.219~222.
20) 최남선,『時文讀本』,『육당 최남선 전집』8, 현암사, 1973, p.475.
21) 여기서 國文이란 '우리나라의 문자체계 및 이에 의해서 쓰여진 글'을 가리키는 것이었

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22]

첫째로는 당시에 自主獨立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자주독립국임을 표방하기 위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軍國機務處가 그 첫 회의에서 中國年號의 사용을 금지하고開國紀年을 쓰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3] 연호의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문제는 문자의 문제였다. 우리는 우리의 고유 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문자인 한자를 국가의 공식 문자로 인정하여 왔다. 중국과의 관계를 청산하려면 이 문자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처를 취하여야만 하였다. 종래 諺文이라 불러왔던 우리의 글을 國文으로 부르게 된 것이라든가 公文書에서의 국문사용을 법률로써 公式化한 것은 그러한 조처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중국으로부터 문화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당시의 선각자들은 국문은 한국 글이고 한문은 외국 글이라는 인식도 가지게 되었으며 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글을 먼저 배우고 외국 글을 나중에 배우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둘째로는 국문을 사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가를 튼튼하게 하려면 제도를 개선하고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물을 카르쳐야 하고 여러 가지 정보의 유통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는 한문보다 국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문은 한문보다 배우기도 쉽고 한글로 한국말을 표기해 놓을 경우 그것은 입으로 하는 말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의 많은 글들에서 한문의 폐해를 지적하고 한문대신 국문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萬民平等 思想의 유입을 들 수 있다. 만민평등 사상이 유입되면서 만민이 평등해 지려면 모든 국민이 문자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국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국문은 누구나 쉽게 배워서 읽고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갑오개혁에 참여한 개화파 인물들 중에 국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온 사

다.(李基文1907:43).엄격히 말하자면 우리의 문자체계인 '한글'과 이 문자체계에 의하여 쓰여진 글인'國文'은 구별될 필요가 있겠으나 당시에는 그러한 구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漢字와 漢文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2) 이는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 주시경의 '국문론' 리봉운의 '국문정리 서문' 신채호의 '文法을 宜統' 독립신문 9권2호 '논설'등을 참조한 것이다.

23) 獨立誓告文에서는 청나라에 附依하는 생각을 끊어 버리고 자주독립하는 기초를 세울 것을 명시적으로 천명하였다.

람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화파의 핵심 인물이면서 갑오개혁에 참여한 사람은 박영효와 유길준인데 이 두 사람은 이미 스스로 국한문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24] 모든 공문서는 국문으로써 본을 삼는다는 칙령 1호14조가 나오게 된 데에는 이들의 작용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것이 박영효가 개혁정부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우연의 소치만은 아닐 것이다.

다섯째는 한글보급이 꽤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사대부들은 어떠하였을지 모르지만 부녀자들이나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국문소설의 유통●성서의 번역●보급 신문 간행 등으로 인하여 한글이 꽤 많이 보급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방각소설이 다량으로 출판되어 유통되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상과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문 위주의 문장생활이 국문 위주의 문자생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문 위주의 문자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가로 놓여 있었다. 우선 당시의 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체계를 확립하여야 하였고 표기법을 정비하여야 하였으면 이를 위한 국어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언문일치를 실현하기 위한 문체를 개발하여야 했고 사전을 편찬하여야 했으며 국문을 널리 보급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한국 근대 초기의 언문운동과 언문정책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2.2 언문운동의 전개

한편 한국에는 갑오경장(甲午更張, 1894)을 계기로 신식교육이 일어남에 따라 국자보급운동이 일어났고 또 그것은 국어운동, 국문운동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던 한국말을 방언(方言), 이언, 언어(諺語), 속어(俗語)등 했다. 그러나 갑오경장을 계기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한국어를 국어(國語)라 부르게 되었고, 그것을 한글로 기록해 온 언문(諺文)도 국문(國文)이라 일컫게 되었다. [25]

그러한 국어·국문운동들은 그동안 순한문으로만 쓰였던 당시의 관보(官報)와 공사문서(公私文書)들이, 갑오경장이 일어나 그 해11월에 모든 법령과 칙령이 국문을 본(本)으로 해서 한문부역(漢文附譯)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해 발표된다는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국한문으로 쓰이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 가서는 고종의 교육입국칙서가 국한문으로 내려짐에 따라 그 칙서에 의거해 소학교령이 발포되어, 학교교과에 국어가 주요 과목으로 부과되어 국어 교과서가 편찬됨으로써 한층 더 구체

24) 김영선(1991)에 이와 관련한 자세한 기술이 있다.
25) 金敏洙,『韓國語學史』(一潮閣, 1964), p.95.

화되어 나왔던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다 1894년에 귀국한 서재필(1866~1951)이 한국 최초의 순 국문판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해 민중의 독립정신 고취에 전력을 다해갔다. 언문일치운동의 실천 수단으로서의「독립신문」은 순한글 표기, 띄어쓰기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국한문혼용체를 채택한「한성순보」와는 달리 또 다른 차원에서 언문일치운동에 획기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순한글 표기는『혈의누』(血의淚 1906)를 효시로 해서 나타난 신소설류에 의해 더욱 일반화되어 나왔다. 물론 신소설의 경우,「독립신문」이 행했던 띄어쓰기까지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순한글로는 쓰였으나 띄어쓰기가 행해지지 않은『홍길동전』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국문이 널리 쓰여지게 됨에 따라, 국문이 바르게 쓰여져야 된다는 필요성인 제기되어 이봉운(李鳳雲)의『국문정리』(1897), 지석영의『신정국문』(新訂國文, 1905), 주시경의『대한민국문법』(1906), 유길준의『대한문전』(大韓文典, 1908) 등이 쓰여져 나왔다. 그들의 그러한 노력은 쓰는 법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만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국력이 쉽게 유기적으로 결속될 수 있다는 뜻에서 행해져 나왔던 것이다.

그 다음 한국의 그러한 국어·국문 운동은 한일합방(1910)을 기해 또 하나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외국어였던 일본어가「국어」(國語)가 되고「조선어는 일본어의 방언이다」라는 견해가 형성되어 나옴으로써 한국인들의「국어」는 언어교육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져갔다. [26] 그러한 상황에서 총독부 학문부는 일본어의 방언으로서의 조선어 정책의 일환으로 1912년4월,「경성어를 표준으로 하고 표기는 표음주의에 의한다」는 등의「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확정시킨다. 그 결과,「"ㆍ"를 사용하지 않고"ㅏ"로 한다」,「받침은'ㄱㄴㄹㅁㅂㅅㅇㄹㅁㅐ8가지에 한한다」,「된소리는 "된ㅅ"으로 한다」등의 것이 규정되어 실시되어 가게 된다. [27]

2.3 한국의 언문운동

2.3.1 문자체계의 확립을 위한 노력

文字體系를 확립함에 있어서 가장 문자가 되었던 것은 ㆍ문제와 硬音表記문체이었다. ㆍ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미 音價를 소실한 문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표기상으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ㆍ의 사용에 심한 혼란이 있었던 것이다. 윤치호의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 ㆍ의 사용에 극심한 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6) 世界敎育史硏究會 編,『朝鮮敎育史』(講談社, 1975), p.252.
27) 金敏洙, 앞의책, p.118

우리나라 국문은 지극히 편리 ᄒᆞ고 지극히 용이 ᄒᆞ나 아(ㅏ 、)음이 둘이 되는 고로 가량 네 사ᄅᆞᆷ이 사ᄅᆞᆷ인ᄌᆞ를 쓰라면 혹은(사람) 혹은(사ᄅᆞᆷ) 혹은(ᄉᆞ람) 혹은(ᄉᆞᄅᆞᆷ)이라 쓰니 뉘가 올코 뉘가 그른지 엇지 알니요. < 윤치호 『독립신문』 2권62호. 5월27일>

사정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의 음가를 밝혀서 어떤 경우에 、를 쓰고 어떤 경우에 ㅏ를 쓸 것인가를 규정해 보려는 노력이 있게 되었다. 、의 음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있었는데 그 중 주시경의 ㅣ ㅡ 합음설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28]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 음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가 당시의 국어를 표기하는 데에 필요한 문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시경은 "、는 ㅣ ㅡ 合音의 準備만 實ᄒᆞ고 實地에는 不用홈이 可ᄒᆞ다" (國文硏究)라고 결론을 내렸는바 이는 매우 타당한 결론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자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를 '不用홈이 可ᄒᆞ다 '는 주시경의 주장이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된소리는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해 왔었는데 리봉운은 『국문정리(國文正理)』(1897)에서 된소리를 '졔몸봇침'(각자병서)으로 표기해야 옳다고 주장하였고 주시경도 된소리를 쌍음으로 파악하여 각자병서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된소리의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音理에 합당하게 各自竝書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동안의 관용(전통)을 ᄌᆞᄂᆞ중하여 ㅅ계合用並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게 된 셈인데 各自竝書說 쪽이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문자체계와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ㅇ'이었다. 당시에는 이미 'ㆁ'이 사용되지 않았었는데 [29] 문자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옛 문헌들을 보게 되면서 'ㆁ'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부터 'ㅇ'과 'ㆁ'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지석영이 、자 대신 창제했던 =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ㅿㆆ'은 당시의 국어를 표기하는 데에 필요 없는 글자들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자 문제를 제외하면 당시의 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체계의 확립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었다.

2.3.2 표기법 정비를 위한 노력

한글에 의한 문자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정한 표기법의 규범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글 보급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한글 문헌이

28) 리봉운은 『국문정리』에서 ㅏ는 장음이 되어야 옳고 •는 단음이 되어야 옳을 것이라고 하였다.
29) 리봉운의 『국문정리』에서 이미'ㆆ ㆁ ㅿ'이 세 글자는 시속에서 쓰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상당수 간행되기는 하였지만 표기법의 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표기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글들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자에 서찰 왕복ᄒᆞᄂᆞᆫ되 국문 쓰ᄂᆞᆫ 법이 일덩ᄒᆞᆫ 규식이 업서 이제 ᄒᆡ혹ᄒᆞᆫ즉 등서ᄒᆞᄂᆞᆫ 칙도 그러ᄒᆞᆫ지라 <국문정리, 팔>

위의 인용문은 일반인의 문자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인쇄된 서책에서도 표기가 일정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문자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표기법의 혼란은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국어에 대한 연구와 함께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한(혹은 표기법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있게 되었다.

당시 표기법 혼란의 주된 내용은 分綴表記, 重綴表記, 連綴表記의 혼란, 받침표기의 혼란, 현실 발음을 반영한 표기와 의고적 표기의 혼란 능이었다.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고 표기법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국어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했었던바. 국어 연구와 표기법 정비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은 주시경이었다. 그는 독립신문사 내에 國文同式會를 조직하여 표기법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던 듯하다.

주시경이 처음으로 표기법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독립신문에 실린 '국문론'에서였다. 이 글에서 그는 우선 우리말을 표기함에 있어 말의 경계를 옳게 찾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체언의 언간과 조사를 분리하여 표기해야 함을 주장한 것으로서 이른바 분철표기를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것이'를 '이것시' 또는 '이거시'로 쓰는 것은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서 문법적으로 대단히 실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墨먹으로'를 '머그로'로 쓰지 말고, '手손에'를 '소네'로 쓰지 말며, '足발은'을 '바른'으로 쓰지 말라고 하였다. 이러한 분철표기는 물론 주시경이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다. 훈민정음 창제 초기의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서도 부분적으로 시도된 바 있었고 근대국어 이후의 문헌들에서는 그런 표기의 경향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받침표기가 音終聲法에 묶여 있는 한 완전한 분철표기로 가기는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주시경은 표기법의 오랜 전통이었던 팔종성법을 무시하고 분철표기를 철저하게 하자는 주장을 한 셈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저하게 분철표기를 하려면 모든 초성을 종성(받침)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주시경은 모든 초성을 종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게 된다. 종래의 팔종성법은 훈몽자회에서 비롯된 폐습이라고 비판하면서 'ㄷ,ㅈ,ㅊ,ㅋ,ㅍ,ㅎ'도 받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표기법은 당시로서는 너무 혁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다음과 같은 그의 진술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諸友를 諸ᄒᆞ여 國文同式會를 組織ᄒᆞ고 國語에 ㄷ ㅌ ㅈ ㅊ ㅍ ㅎ ㄲ ㅆ ㅉ ㅀ 等 音이 終聲으로 發ᄒᆞ는 字가 有ᄒᆞ즉 國語대로 國文을 記用ᄒᆞ자 ᄒᆞ더니 同會諸人이 獨立黨의 嫌으로 四處에 奔竄ᄒᆞ여 素志를 完成치 못ᄒᆞ엿으나 余는 此事를 因ᄒᆞ여 幸히 閑隙을 得ᄒᆞᆷ으로 乙亥年에 國語를 더 硏究ᄒᆞ고 以後로 다시 此理를 親知間에 申複히 說明ᄒᆞ여 同議ᄒᆞ는 者가 不少ᄒᆞ나 國文에 聲望이 有ᄒᆞ다 ᄒᆞ는 이들도 此說을 恍然히 覺悟치 못ᄒᆞ여 舊誤를 未免ᄒᆞ더니 < 國語文典音學 61 >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시경은 훈민정음에 '終聲復初聲'이라는 구절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 용비어천가에서 'ㅈ ㅊ ㅍ'등을 종성으로 사용한 예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철표기, 받침표기의 주장과 함께 주시경이 제안한 또하나의 표기법의 원리가 소위 本音主義 表記法이다. 본음주의 표기법이란 주로 어간에 관련된 것인데 발음이 어떻게 되는 本音을 밝혀서 고정적으로 표기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본음주의 표기법은 漢字語의 漢字音 表記 전통에서 암시를 받은 것인 듯하다. 즉 '百年'이 '백년'으로 발음되지만 실제 표기를 할 때에는 '빅년'으로 본음대로 적는 것과 같이 고유어 단어의 경우에도 발음되는 대로 적지 말고 본음을 밝혀 적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ㅅ 과 ㄷ 이 某字의 終聲으로 下에 母音이 連ᄒᆞ지 안이 ᄒᆞ고 發ᄒᆞᆷ을 止ᄒᆞᆯ 時에 와 某子音의 上에 連ᄒᆞ여 發ᄒᆞᆯ 時는 ㅅ 과 ㄷ 이 相同ᄒᆞ니 此는 臨時의 自然한 音理라 百年을 臨時의 音으로는 백년이라 發ᄒᆞ되 백년으로 書치 안코 빅년으로 書ᄒᆞ여 本體를 存ᄒᆞᆷ과 如히 ㅅ ㄷ 의 終聲도 我國 言語의 本音을 依ᄒᆞ여 書ᄒᆞᆷ이 叮ᄒᆞ니라 < 國語文典音學 54-55 >

何國語를 何國文으로 記ᄒᆞ든지 其語의 本音으로 書ᄒᆞ고 自然ᄒᆞᆫ 音理대로 讀ᄒᆞᆷ이 古今天下에 通同ᄒᆞᆫ 常例라 (중략)

我國에서 漢文音은 本音을 存ᄒᆞ여 書ᄒᆞ며 此를 可ᄒᆞᆫ 줄로 역이되 國文에 至ᄒᆞ여는 不然ᄒᆞᆷ이 有ᄒᆞ니 此를 엇지 公平ᄒᆞᆫ 思想이라 ᄒᆞ며 또. 엇지 音理와 語式에 適當ᄒᆞᆫ 事라 ᄒᆞ리오

< 國文硏究 'ㄷ ㅅ 二字 用法과 ㅈ ㅊ ㅋ ㅌ ㅍ ㅎ 六字 終聲當否' >

그는 자기의 표기법에 따른 표기의 예를 보여 주기도 하고 새 받침을 가지는 용례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대한국어문법』에서 제시했던 예들 중의 일부이다.

	洗 雖	若	而	之
法	씻 어 도	씻 으 면	씻 고	씻 는
俗	씨 서 도	씨 스 면	씻 고	씻 는
	씻 서 도	씻 스 면	씻 고	씻 는

任

法	맡 아 도	맡 으 면	맡 고	맡 는
俗	마 타 도	마 트 면	맛 고	맛 는
	맛 하 도	맛 흐 면	맛 고	맛 는
	맛 타 도	맛 트 면	맛 고	맛 는

여기서 '法'행의 표기들은 주시경이 '그 말의 원테와 본음과 법식'에 맞는다고 한 표 기의 예들이고 '俗'행의 표기들은 일반에서 잘못 써 오던 예들이다. 주시경은 규칙적인 활용의 경우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인 활용의 경우까지도 어간을 기본형으로 고정시켜 표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만다셧나'(製)를 '만들셧나뇨'로 표기하고서 '들'의 'ㄹ'에 사전을 긋는나든지 (대한국어문법 12ㄱ). '누운'(臥)을 '눕은'으로 표기하고서 '눕'의 'ㅂ'에 사선을 긋는다든지(말 56) 하는 식이었다. 여기서 사선은 그 음이 발음되지 않는다는 표시이었던 듯하다. 언어 연구에 있어서 철저히 분석적이었던 주시경은 파생이나 합성어의 경우에도 분석할 수 있는데까지 분석한 다은 어간의 본음 (혹은 원체)을 밝혀 적으려 하였다(곧히다, 먹히다, 반듯이, 동글암이, 지붕, 두름이, 솔나무). 그리고 현실음과 동떨어졌던 표기들을 현실음과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나갔다. 예컨대 '서로, -에서'라고 표기하던 것을 '서로, -에서'로 표기하게 되었으며 '마듸, 더듸다'로 표기하던 것을 '마디, 더디다'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국어의 현대적 표기법이 어느 정도의 골격은 마련된 셈이었다. 물론 주시경이 맞춤법 규정을 일일이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논저들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자기의 표기법 이론에 의한 표기의 실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표기법이 어떤 것이었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표기법과 관련하여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빈칸띄어쓰기가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근대국어 말기부터 권점띄어쓰기가 시도된 바는 있지만 빈칸띄어쓰기를 처음 실시한 것은 독립신문이었다. 한글에 의한 문자생활, 특히 純국

문에 의한 문자생활의 경우 빈칸띄어쓰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글 전용을 하면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글을 읽기가 한문보다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건 다음이 아니라 첫째는 말마을 떼이지 아니ᄒᆞ고 그저 줄줄내려 쓰는 쓰돔 글자가 우희 부터는지 아래 부터는지 몰나서 몇번 일거본 후에야 글자가 어디 부터는지 비로소 알고 일그니 국문으로 쓴편지 ᄒᆞᆫ장을 보자ᄒᆞ면 한문으로 쓴것보다 더듸 보고.....(이하 생략) <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 >

이러한 빈칸띄어쓰기가 곧바로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빈칸띄어쓰기의 효용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점차 확산되어 갔다. 이 빈칸띄어쓰기를 함으로써 한글사용의 타당성이 더 증대될 수 있었다.

2.3.3 어휘 정리와 사전 편찬을 위한 노력

개항과 더불어 서구의 신문물이 들어오고 갑오개혁으로 사회의 제도가 바뀌고 고종의 칙령으로 새로운 문자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휘정리 및 사전편찬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우선 사전편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혼란된 어문생활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시의 어문생활의 혼란은 純국문체 또는 국한문혼용체 사용에 따른 어휘 사용상의 혼란과 표기법상의 혼란이 대표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전을 편찬하여 각 단어의 일정한 표기법을 정해 주고 각 단어의 일정한 뜻을 풀이해 준다면 어문생활에 있어서의 어휘사용의 혼란이나 표기법상의 혼란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말ᄌᆞ던이 업스면 엇더ᄒᆞ뇨

말ᄌᆞ던이 업스면 그 분별ᄒᆞ여 덩ᄒᆞᆫ 뜻을 증거ᄒᆞᆯ 바이 업슴으로 쓰는 길이 여일치 못ᄒᆞ고 일어ᄇᆞ리는 말이 만으니이다.

< 대한국어문법 7 - 8 >

국문으로 옥편을 문드러 글ᄌᆞ 쓰는 법을 정히 놋코 그대로 ᄀᆞᄅᆞ쳐 아ᄌᆞ와 비ᄌᆞ를 합ᄒᆞ 거드면 아비라 ᄒᆞᄂᆞᆫ대 뜻이즉 엄이의 남편이요 부모 중에 사나하라 이럿케 주를 내여 선국 인민을 ᄀᆞᄅᆞ쳐 놋커드면 아비 두ᄌᆞ면 사ᄅᆞᆷᄆᆞ나 무슴 말인시를 알터이요 말노 ᄒᆞ여도 아비요 책을 보아도 아비라 누가 모롤 사ᄅᆞᆷ이 잇시리요 (중략)

우리가 바라건대 죠션 학부에셔 죠션 국문 옥편을 만드러 말 쓰는 규칙과 문법을 정ᄒᆞ야 전국이 그 옥편을 좃ᄎᆞ 말과 글이 갓도록 쓰고 닑게 ᄒᆞ며 각색 한문 책

을 번력 ᄒᆞᆯ 때에 이 옥편에 있는 규칙대로 일정 ᄒᆞᆫ 규모를 ᄀᆞ지고 ᄒᆞ게 만드는 것이 조선 교육 ᄒᆞ는 긔초로 우리는 알고 또한 조선 독립과 사람의 생각에 크게 관계가 있는줄노 생각 ᄒᆞ노라 <『독립신문』 2권 92호 논설 >

죠션말노 문법책을 정밀ᄒᆞ게 만드어셔 남녀간에 글을 볼 때에도 그 글의 뜻을 분명이 알아보고 글을 지을 때에도 법식에 ᄆᆞᆺ고 남이 알아보기에 쉽고 문리와 경계가 붉게 짓도록 갈아쳐야 ᄒᆞ겟고 또는 불가불 국문으로 옥편을 만드러랴 ᄒᆞᆯ지라(중략) 누구던지 글을 짓거나 책을 보다가 무슨 말의 음이 분명치 못ᄒᆞᆫ 곳이 잇는 때에는 옥편만 펴고 보며 환 ᄒᆞ게 알지라 <주시경, 국문론>

돌째는 명분론적인 관점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의 여러 문명한 나라들은 모두 다 자기 나라 말의 사전을 구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구한 문화의 전통을 가지도 있으면서도 사전을 가지지 못하였는바, 이는 문화민족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然ᄒᆞ나 人이 有ᄒᆞ면 語가 必有ᄒᆞ야 其情을 相通ᄒᆞ며 國이 有ᄒᆞ면 國語가 有ᄒᆞ야 本有純粹의 精義를 表現ᄒᆞ나니 故로 國이라 稱ᄒᆞ고 明確한 國語의 辭典이 不具ᄒᆞ야 言語의 向背가 홀륜할진대 엇지 文明한 民族이라 可謂할가

我韓은 屢千年 文明한 國家라 各船의 制度가 燦然極備ᄒᆞ야 彬彬郁郁ᄒᆞ나 及其國語에 對ᄒᆞ야는 姑히 辭典이 未備ᄒᆞ야 縱或 學者間에 多少論評이 有ᄒᆞ나 秩然成章한 者는 未見ᄒᆞ얏스니 此豈 吾人의 可羞한 者이 아니리오

<辭典研究說, 『大韓民報』. 175호. 1910.1.16.>

이 두 번째 관점은 어문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문민족주의에서는 민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언어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민족국가의 흥망성쇠가 언어를 잘 수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언어수리의 양대 과제가 문법정리와 사전편찬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언문민족주의의 관점에서는 사전편찬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어휘정리 및 사전 편찬은 그 시기의 시대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바, 한국의 근대 초기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은 마찬가지였다. 우선 근대초기는 한문 위주의 문자생활이 국한문혼용 내지는 국문전용의 문자생활로 전환되는 시대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휘정리가 필요하였다. 즉 한자 또는 한자어에 대응되는 고유어의 정리라든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의 정리 등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관제개혁과 새로운 법령제정에 따르는 용어들이나 新聞物。 新學問의 도입에 따르는 여러 용어들의 정리가 필요하였고 외국어(특히 고유명사들)의 외래어화에 따르는 어휘정리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근대 초기에는 근대 초기의 시대적 특성에 맞추어 여러 방향에서의 어휘정리가 시도되었던 것

이다(李秉根1988).

근대 초기에 이러한 어휘정리의 첫선을 보인 것은 李準榮, 鄭玹 등이 편찬한 『國漢會語』(1895)이었다. 이 『國漢會語』는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동역의 필요성도 많아지게 되자 이러한 交隣通譯에 도움을 주고자 편찬된 것이다.[30] 대체로 표제어(고유어 또는 한자어)를 국문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를 제시하거나 그 의미를 한문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國語를 漢字 또는 漢字으로 풀이한 어휘집이었다. 이 어휘집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어휘도 상당수 들어 있다. '헌법(憲法), 경찰관(警察官), 화학(化學), 자유당(自由黨), 아미리가(阿美利哥)'등이 그러한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제도, 한문, 문물이 들어오면서 나타난 新語들이었다. 한편 이 어휘집은 당시의 혼란된 어문을 바로 잡으려는 데에도 그 편찬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서문에서 당시의 어음 사용이 각양각색으로 몹시 혼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31] 『國漢會語』에 실려 있는 표제항수는 25,000에 달하는바 이는 당시로서는 가장 방대한 것이었다.[32]

지석영은 『字典釋要』를 편찬(1906). 간행하고(1909) 『言文』을 저술하여 어휘정리에 기여하였다. 『字典釋要』는 漢字 각 字에 音과 訓(새김)을 한글로 제시한 한지자전이다. 이 책의 편찬동기는 한자의 음과 훈을 명확하게 제시해줌으로써 어문생활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우리의 어문생활이 한문의주에서 국한문 혹은 국문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자전의 필요성은 매우 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지석영은 새로운 형태의 자전을 편찬한 셈인데, 각 한자에 대응되는 국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의 어휘정리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言文』은 상편과 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편에서는 2음절 이상의 한자어 또는 한문구절을 '가로 街路, 가화만사성 家和萬事成, 김유신 金庾信, 강원도 江原道, 영길리 英吉利, 미국 美國, 구라파 歐羅巴' 등과 같이 국문 대 한문의 대조로 제시하고 있고 하편에서는 '事 일ᄉᆞ 셤길ᄉᆞ, 在 잇슬재, 學 빈올학' 등과 같이 각 한자에 훈과 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상편은 일종의 한자어 어휘집으로 國漢對照辭典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하편은 일종의 字書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하겠다. 이 『言文』은 국한문혼용이 일반화되어 가던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한자어와 한자를 교육시키기 저위해 술된 것인데, 상편에서는 당시에 널리 쓰이던 한자아를 國 .

30) 『國漢會語』의 서문에서 '交隣通譯하난 方엔 萬一之助가 庶或하올 덧'이라고 언급하였다.

31) 서문에서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辭說이 主着을 得치 못하야서 恒文하던 者도 語音을 斟綜치 못하고 恒語하난 者도 文理의 接續이 難하야 支分葉裂하고 糊塗聱牙하오니 恒文恒語하난 이도 如然하거든 況且 文異語異하니 따녀

32) 『國漢會語』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洪允杓(1986) 몇 洪允杓(1993) 참조.

漢으로 제시하고 하편에서는 이들 한자어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한자의 훈과 음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에도 역시 당시에 새로이 쓰이게 된 단어들이 실려 있다. '불란셔 佛蘭西, 대학교 大學校, 대통령 大統領, 천주교 天主敎' 등등이 그러한 예들이다.[33]

한국 근대 초기의 어휘정리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문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大韓民報』를 들 수 있다. 이 신문은 1909년 6월 2일부터 1910년 8월 31일까지 간행된 日刊紙인데 < 新來成語 (問答) >, < 名詞輯要 >, < 俚訓覺非 >, <辭典硏究草 > 등을 연재하면서 국어의 어휘정리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34]

창간호(1909.6.2.)부터 90호까지 연재한 < 俚訓覺非 >란에서는 한자의 字訓을 바로잡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 字　　집기슭우라흠이 (正)

＊ 字義가擔下이니집우라흠은(訛)

90호(1909.9.28.)부터 165호까지는 <名詞輯要>란을 두어 매회 5개의 고유어단어를 제시하고 거기에 정확히 대응되는 한자어를 제시함으로써 고유어 및 한자어 명사들을 정리하였다.

＊ 갈키 (柴把者)　　＊ 갓거리 (帽架)　　＊ 불집게 (火鉗)

175호(10.1.16.)부터 269호(1910.5.10.)까지는 <辭典硏究草>를 연재하였다. 이 <辭典硏究草>는 표제항을 한글로 제시하고 제시된 각 표제항에 대하여 국한혼용체로 뜻풀이를 한 국어사전 형식의 것이었다. 국한문혼용체로 나마 표제항에 대하여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國漢會語』보다는 현대적 사전에 한발짝 더 다가선 것이었다.

가　　字都　　(그아合音)

가　　往이니　　現在詞 ＊ 往을命ᄒᆞ는珞詞

가가　　家家 ㅣ 니집집

그밖에 2호부터 136호까지 <新來成語 (問答)>이라는 난을 두어 法令과規則등에 쓰이게 된 새로운 用語(新來成語)들을 문답식으로 풀이하여 주기도 하였다. 애국계몽적인 성격을 띠었던 이 신문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3) 『言文』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李秉根(1998) 참조.

34) 『大韓民報』의 어휘정리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는 李秉根(1988)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

근대 초기의 어휘정리와 관련하여 또 하나 심각하게 문자가 되었던 것은 외래어(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의 인명. 지명) 문제였다. 외래어란 언제나 있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근대 초기는 그 이전의 어떤 시기보다도 외래어가 다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하지를 않았다. 처음에는 외래어를 주로 중국을 통하여 받아들이다가 다음에는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서구어로부터 직접 받아들이기도 하여 외래어의 표기 문제가 간단치를 않았다. 다음의 예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張志淵의 『萬國事物紀原歷史』(1909)에 제시된 曜日의 이름 [35]

* 日曜日	新地	* 木曜日	阿時地
* 月曜日	文地	* 金曜日	夫及地
* 火曜日	超時地	* 土曜日	沙他地
* 水曜日	溫時地		

沈宜性이 譯述한 <歷史及地理의 槪論> (『大韓自强月報會』11.1907) 에 제시된 '六大洲의 區域'[36]

* 세아주 (亞細亞洲)	* 시야
* 라파주 (歐羅巴洲)	* 롭프
* 블이가주 (阿弗利加洲)	* 흐리카
* 양주 (大洋洲)	* 스트뤨늬야
* 아미리가주 (北阿美利加州)	* 트아메리카
* 아미리가주 (南阿美利加州)	* 우트아메리카

외래어를 의역하여 받아들인 경우(일요일, 월요일), 중국에서 음차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新地, 亞細亞) , 원음에 가깝게 한글로 표기하여 받아들인 경우(에시야, 유롭프) 등등이 혼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37] 사정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외래어를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외래어의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35) 이병근(1988:74)에서 재인용
36) 이병근(1988:74)에서 재인용
37) 이러한 사정은 李能和도 國文硏究(1909)의 '綴字法' 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이능화는 외국의 地名, 物名 등을 그 나라말의 音譯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였다. 李基文(1984:83) 참조.

2.3.4 한글 및 표기법 보급을 위한 노력

한글이 공식문자로 인정되고 국문에 의한 문자생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한글 및 표기법을 널리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국민을 계몽하려면 글을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은 원칙적으로는 교육기관이 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교육기관(학교)이 많이 설립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상당 부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민 계몽을 위한 한글 및 표기법 보급의 역할은 우선 신문들이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漢城週報』, 『독립신문』, 『皇城新聞』, 『大韓民報』 등 여러 신문들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간행되었겠지만 이런 신문들이 국한문체 또는 순국문체를 사용함으로써 한글을 보급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독립신문과 같이 순한글 신문들은 한글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들 외에『가정잡지』 등 잡지들도 한글 보급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시경 같은 사람은 상동청년학원 안에 국어강습소를 설치하고 개인적으로 한글 및 표기법을 보급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韓承坤 같은 사람은 『國語綴字法捷徑』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표기법을 보급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 근대 한국과 중국의 언문일치운동

3.1. 한국의 언문일치운동

1860년대 이후 서양과 일본帝國主義가 밀려오는 가운데 근대한국의 封建사회는 解体의 위기를 접했다. 그런 狀況속에서 봉건양반출신들 중 개화사상에 자각한 일부 개화파의 개혁운동(甲申政変, 1884)이 발생, 이후 농민의 反外勢, 反封建투쟁인 東學農民전쟁(1894)으로 發展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 들어와 주되는 중요항한 사실은 표현에 있어서 從來의 漢文을 버리고 국문(한글)을 사용 하려고 한 것이다. [38] 항상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낡은 것과의 葛藤이 있듯이 漢文에서 국문으로의 움직임은 頑固한 보수파의 반발도 있었지만, 관료 및 民衆의 투쟁에 의해 政治改革과 自主獨立의 그대화가 推進되었다.

이러한 근대화와 일본에 對抗하는 저항運動의 움직임 속에서, 諺文은 국문(한글)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이때까지의 朝鮮社會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民族意識의 형성은 어려웠다. 世宗時代 한글이

38) 유창균, 『국어학사』, 형설출판사, 1987.

創製(1443)되어도 언문으로 취급되고, 漢文의 세력이 여전히 강하고, 말과 글의 乖離가 격심했지만, 1880年경부터 言文一致의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 甲午개혁(1894)을 통해서 朝鮮의 공문서는 國漢文혼용체 중심으로 되고, 언문일치의 傾向을 가속화 시켰다.

日本의 植民地化가 본격적으로 됨에 따라 民衆들의 반외세, 半封建투쟁에 고무된 양반출신의 改化派와 啓蒙的 지식의 필요성을 痛感해온 청년들은, 外勢로부터 自主獨立과 근대화의 확립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출판運動과 言文一致의 운동을 통해 民衆을 啓蒙하면서 정치단체를 결성하여 근대화를 促進하기 위한 정치적 요구를 實現하고자 했다.

우선 첫째로, 신문 등을 만들어 국민을 啓蒙하였다. 둘째로, 한문대신에 民衆이 읽기 쉬운 한글을 널리 사용하여 思想과 문화를 일반大衆에게 접근시켰다. 셋째는 1986年 大衆적인 정치단체의 性格을 띤 獨立協會를 창립한 것이다. [39]

韓國최초로 발행된 漢城旬報(1883. 10. 1創刊)는 국민이 널리 읽는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한문체로 쓰여 있는 점으로 訓民正音창제 이후 여전히 한문체의 세력이 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漢城旬報의 속간인 漢城週報(1886. 1. 25)에서, 주목 할 것이 國漢文体의 등장이다. 문체의 革新이 일어나 創刊辭를 주간한 유길준은 國漢文体를 사용하고 있다. 國漢文体는 일찍이 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와 杜詩諺解『두시언해』에 사용되었고 근세에 와서는 時調와 歌辭의 표기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開化의 사상이 고조되어 言語와 文字生活에 있어서 한글사용의 자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漢文, 국문체, 國漢文体의 표기를 섞어 사용하던 초기와는 달리 국문체의 기사를 이후에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국문체가 없어지면서 國漢文体가 늘었던 것이다. 漢城週報가 國漢文体를 사용한 데는 유길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실제로 그는 漢城週報의 전신인 漢城旬報의 창간에 즈음하여 그 創刊辭를 국한문체로 쓴 일이 있었고 [40] 그 뒤 그의 西遊見聞 역시 국한문체로 썼음은 잘 알려져 있다. 어떠한 이유로 국문체의 기사가 줄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직까지 國文이 諺文으로서 부녀자의 글이라는 전통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漢文에 미련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최초로 純국문체로 創刊된 독립신문(1896. 4創刊)에서는 한문은 뜻과 음이 달라 통효하는 것이 어렵다 (『독립신문』1896. 4. 7. 사설)고 하여, 국민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 開明의 길에서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39) 김민수, 『신국어학사』, 일조각, 1982.
40) 이기문, 「開化期의 國文使用에 관한 硏究」, 한국문화5, 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1984.

이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 문자사용에 있어서 역사에 特記할 만한 사실이었다. 純國文을 사용하여 甲午改革 이후 國文体의 기세를 드높인 것이다. 또 독립신문에는 띄워쓰기를 사용하고 있고, 유길준의 『서유견문』 [41](1895)보다도 알기쉬운 문체이다.

또, 지석영은 純국문으로 「국문론」(1896. 11)을 발표하여 국문의 통일을 주장하고, 무엇보다 일찍 漢字廢止와 한글전용을 주장했다.

이봉운도 純국문으로 「국문정리」(1897)를 저술하여, 朝鮮사람은 한글을 존중하고 학습할 것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漢文을 숭상하는 것을 개탄하여, 言文一致에 관련된 表記法의 문제를 가시화하였다. 개화기의 새로운 敎育制度의 개혁과 국한문혼용체와 純국문체와의 갈등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文字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語文政策과 표기법을 통일하는 과제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1894年 이래의 개혁에 따라 학부의 편집국에서 국문철자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池錫永 李能和와 개화적인 語文論者들에 의해 각각「신정국문」과 「국문일정의견서」를 학부에 제출한 것 자극이 되어 국문의 整理·硏究를 위하여 학부에서는 국문연구서를 설치하게 된다. 周時經은 국문동식회를 조직하는 등 池錫永과 周時經의 끈질긴 노력의 간접적 영향으로 설립된 국문연구소는 1907年에 설립된 이후 3年동안 1910年 국치를 당할 때까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42]

周時經은 실제로 자신의 글이나 저서를 통해 국문체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는데, 우선漢文을 국문으로 옮겨 놓은 긋한 그 당시의 국문체 文章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 우리말이 된 漢字語만을 써야 할 것을 주장했다. 즉, 강 (江)이나 산 (山)과 같이 이미國語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한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다. [43] 라고 國語 표기에 있어서 言文一致를 이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국문연구소의 개설은 국문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문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국문연구소는 철저한 統監府의 감시하에서 1911年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고 일본어의 보급을 목적으로 보통학교를 세우는 한편 朝鮮어독본 등 교과서의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普通학교용 諺文철자법을 제정하여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실용,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正書法 統一案이다.

---

41) 유길준은 歐米를 견문한 것을 정리하여 문명국의 상황을 소개한 「西遊見聞」을 집필하고 1985년 일본에서 간행했다. 표기를 國漢文体로 일관한 것이 주목된다.
42) 李秉根, 「開化期의 語文政策과 表記法問題」, 韓國學報 12, 1978.
43) 이기문1984), 「개화기의 국문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그리고 동학을 창건한 최재우는 국문가사집인 「용담유사」(1860-1863?)에서 “요망 한서양의 적이 동국을 침범하여 라고 事態를 세세히 지적했다.[44]

동학은 민중종교로서, 일본의 植民地의 움직임에 대항하는 한편 격문이 필요했다. 격문에는 漢文体와 國文体가 있고, 한글만으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漢字語에만 漢字로 표기하고, 그 漢字에는 한글읽기의 주석을 달았다.

격문과 같이 그 趣旨를 주지시키는 文章을 한글로서 사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것은 言語生活에 있어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19세기 말엽 기독교계 역시 국문체를 택함으로 국문체는 종교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되었다.

중국 우장(牛莊)에서 1875年부터 1881年까지 로스(J.Ross), 맥킨타이어, 이응찬, 최성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성서번역은 이들 자체적으로 만든 2500단어의 어휘집과 조선정부에서 발행한 諺解本을 참고로 하여 성서를 번역했는데, 특히 대중에게 적합한 것을 목표로, 서북방언에 가깝게 번역했다. 이들의 번역이 뒤에 이루어지는 성서번역에 영향을 끼치고, 대중에게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든 점 [45]을 고려해볼 때 성서번역 또한 言文一致로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인정할 수 있다. [46]

전통적으로 소설은 국문(諺文)으로 표기되어 왔으나 20세기 初 20여 년간 우리나라 소설의 문체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러한 진통은 우리나라 소설이 경험한 전통이 단절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이란 단절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新小說 이후의 작품들이 크게 보아 古典小說의 전통을 배경으로 했음에도 그 작가들이 이런 전통적 인식보다 일본의 模型에사로 잡힌 결과 문체에 있어서 일본의 것을 본뜨게 되었다. [47]

이인직 [48]은 1906年 만세보에 제목이 있는 ‘小說 短篇’ 을 연재하면서 국문과 한자를 혼용하였는데 그 첫 머리에 “이 小說은 국문으로만 보고 漢字音으로는 보지

---

4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94.
45) 한국기독교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1권』, 기독문화사 1989.
46) 구인모, 「국문운동과 언문일치」, 국어국문학논문집18집, 동국대학교.
47) 권영민, 「애국계몽시대의 소설개혁운동」, 한국문화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4.
48) 이인직1862-1916)은 신소설의 창시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사회에서는 불리한 가문에서 태어났던 것 같고, 그 보상책을 친일하는 데서 찾아 일본 유학을 하고 러일전쟁 때 일본군 통역이 되어 귀국했다. 문필활동을 하는 것이 자기의 재능을 살리면서 일제에 봉사하는 방책이라고 여겨 신문사에 들어가 일하면서 소설을 쓰는 한편, 이완용의 비서직으로도 일했다. 일본의 천리교를 믿고 일본인의 정신을 가지고자 했다. 趙東一, 韓國文學通史4, 知識産業社, 1994.

마 시오" 라고 註記하고 있다. 49)

읏 더　　좁은길　　저리꾸버러져　　이리꾸부러져

何如혼　來路이　　彼曲지고　　此曲져서

가다보면마킨길　　뚤린길

行看則窮路,　오가셔 보면 通路이라.

이것은 일본의 훈독表記法에 따른 것이며, 이것은 이인직이 소설을 일본에서 배웠음을 말해주고 같은 해 『血의 淚』를 만세보에 발표했을 때에도 이와 같은 표기를 채택했다. 그 시대 상황이 이인직을 이용했을 따름이고, 이인직은 1912年 『매일신보』 에 발표한 단편 〈빈선랑貧鮮郎)의 일미인日美人)〉 에서 일본의 미인과 함께 사는 가난한 조선인 남편의 초라한 행색을 그려 좌절을 술회했다.

일제 강점을 전후하여 국외로 망명하여 항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신채호는 일제를 직접 비판하는 논설활동을 하면서 항일 독립운동의 문제를 소설 창작의 전면에서 직접 다루었다. 50)

甲午更張을 전후한 開化期의 한글운동은 국어 국문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바로 이 開化期에 일어난 ′한글운동′은 단순한 국어 국자 애용 운동이 아니고, ′민족운동′의 하나이다. 곧 민족의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글운동′이 번져갔다. 51)

일제의 침탈이 노골화된 1905年 을사보호조약을 계기로 자강운동이 활발해진다. 따라서 국문사용이 지닌 전략적 성격은 이전부터 서서히 준비되어온 근대화의 지향이 봉건체제에 대한 부정과 ′開化′라는 근대사회의 지향이 구체화되어 민족공통어 형성에 주력하게 되고 이러한 國權回夏을 위하여 애국啓蒙的인 국문民族主義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 때의 國語관은 民族的 이데올로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言文一致運動은 啓蒙적 지식人과 民衆, 사회단체, 종교계에서 민족 각성 운동의 하나로 개화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애국운동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운동 간주되며 言文一致運動을 통해 모든 국민이 통일된 表現方式을 가지게 되고, 자국어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에 있어서 言文一致運動은 근대화를 促進하기위한 原動力의 하나가 됨과 동시에 韓國語에 대한 과학적 硏究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

49)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사용에 관한연구」, 한국문화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4.
50) 趙東一, 「韓國文學通史4」, 知識産業社, 1994.
51) 이응호, 「갑오경장과 어문정책」, 새 국어생활 4 -4, 국어국립연구원 1994.

주시경은 소리와 괴리를 보이는 한자를 폐지하고 문자 표음주의에 따라 우리말을 표음문자인 국문으로 적을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고려하여 '언어 단위'를 고정시켜 표기하는 형태 음소적 원리를 상정하고 이에 맞추어 국어· 국문을 수정· 통일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모두 말과 글을 같게 하여 그가 판단한 '言文不同'의 "폐"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에 뜻을 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문자 표준어의 제정과 교육을 통해 어문을 통일하고 "國性"을 진흥하여 나아가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언어의 訛誤**가** 多ᄒᆞᆫ故**로** 音**을** 正ᄒᆞ**여야** 可**히** 文**을** 成ᄒᆞᆯ**지라.** 然ᄒᆞ**나** 此**로** 民**을** 訓 **치 안으면** 訛習**을** 改**치 못**ᄒᆞ**면** 相當ᄒᆞᆫ言文**을** 不得ᄒᆞᆯ**것이요,** 相當ᄒᆞᆫ言文**을** 不得ᄒᆞ **면** 他國文**을** 永用ᄒᆞᆯ**것이요.** 他國文**을** 永用ᄒᆞ**면** 我國民**이** 自國惺**을** 永失ᄒᆞᆯ**것이요,** 我國民**이** 自國惺**을** 永失ᄒᆞ**면** 我國民**의** 前道**가** 無狀ᄒᆞᆫ境**에** 至ᄒᆞ**리니** 此弊**를** 救ᄒᆞ**랴면** 不可不 言語**의** 訛習**을** 改ᄒᆞ**고** 音**을** 正ᄒᆞ**여** 相當**한** 言文**을** 成ᄒᆞ**고** 또此**로** 民**을** 訓ᄒᆞ**여야 되리라** ᄒᆞᆷ**이라.**(『**국어문전음학**』18~19)

언문일치 운동의 차원에서 볼 때 주시경의 국문 수정은 글쓰기 언어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가 비록 글쓰기 언어의 '표기'를 수정하고 통일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하더라도 표음주의 문자관을 가진 주시경에게 있어 그것은 곧'글쓰기 언어'의 수정과 [52]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總督府는 국어 抹殺政策과 노골적인 친일문학의 강요 등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민족어에 의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1930年 3回安에 이른 諺文綴法은 1933年의 한글맞춤법통일안과 유사한 것으로 주시경이 영향을 깊이 받은 權悳奎, 崔鉉培등이 綴字法 制定에 참여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53]

1938年 第3次 ′朝鮮교육令′을 制定하여 國語과목을 隨意과목으로 바꾸고, 차차 各級학교에서 자진 폐지하는 형식을 취한 후 國語과목을 개설하지 않게 된다. 1940年에는 國語로 發刊 되어온 『東亞日報』 와 『朝鮮日報』 를 廢刊, 1941年에는 國語로 刊行되어온 「國民文學」 을 일본어로 발행하게 하는 등 국어의 교육과 출판물이 全廢된다. 따라서 總督府가 制定한 언문綴字法이나 朝鮮語學會가 制定한 ′한글맞춤법통일안′ 도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해방을 맞게 된다.

---

52) 글쓰기 언어의 통일을 지향한 일본의 언문일치 운동에서 그 '글쓰기 언어'는 있는 그대로의 언어가 아닌 "조탁"을 거친 언어를 의미하였다. 오늘날 언문일치를 시작하려 한다면 그 토대가 되는 口語는우선 대개 어느 지방이든지 언제라도 교양 있는 사회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도쿄 중류이상의 사회의 언어가 아니면 안된다. …도쿄어는 아직 조탁되어 있지 않고 수련되어 있지 않은 언어이다. …조탁을 무시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임 신 1900) 하지만 임 신(1845~1922)은 언어상의 "조탁" 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시경과 다르다. 이는 일본의 언어 ·문자적 특징이 우리와 상이한 데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진다.

53) 李秉根, 「開化期의 語文政策과 表記法問題」, 韓國學報 12, 1978.

3.2 국문운동

국문운동은 한 마디로 한문체에서 국문체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종의 '문체의 혁명'이라 볼 수 있다.

한글이 창제되고도 오랜 기간 동안 공식 표기체계로서 정치적•문화적 역량을 지니고 있었던 한문이 19세기말에 이르러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시기에 이르러 한문으로 가능했던 조선조의 질서체계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 때문이다. 동학의 교주 최제우가 쓴 가사집인 「龍潭遺詞」(1860~1863?)나 동학혁명 때의 격문은 이러한 당시의 사정을 시사하는 자료이다. 「용담유사」에 실린 8편의 가사가 純한글로 기재되어 있는 반명, 동학혁명 때의 격문은 국문과 한문이 섞여 있으며, 한자에는 모두 한글 독음이 부기되어 있다. 동하기 한글을 사용했던 까닭은 서민대중을 포교와 선동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동학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교리로 ′동귀일체(同歸一體)′, ′사인여천(事人如天)′, ′인내천(人乃天)′등이 모두 인간평등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한글의 사용 또한 동학의 평등사상에 따른 것이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독립신문」 (1896년 창간)에서도, 국문을 사용해야 "상하 귀천이 모도보고 알어보기가 쉬흘터 [54] 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국문의 사용은 서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서 주로 사용된다. 특히 「독립신문」은 국문만을 사용했는데, 이는 독립신문사 안에 주시경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문동시회(國文同式會)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도 독립협회가 국민주권•국민참정권의 획득•의회설립과 자주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 만큼, 국문 사용은 이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터이오 백성의 정세을 정부에 전할터이니 만일 백성이 지세이 알고 정부에서 백성에 일을 자세이 아시면 파차 에 유익한 일만이 잇슬터 [55] 라는 논설의 한 구절은 좋은 예이다. 국문은 서민 대중에게 독립협회의 정치이념과 목적을 전하는 가장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문의 사용은 민권 신장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종교단체나 정치단체가 서민 대중을 포섭•계몽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전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그 전략의 이면에는 중세적 질서체계에 대한 도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아울러 고금의 진문(眞文)인 한문이 단지 ′배우기 어려운 외국 글′로 전락하게 된 데는 조선 중기 이후 변화의 조짐을 보인 천하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립해야 한다는 자주의식이 큰 몫을 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독립신문」이 창간된 즈음은 서구열강의 압력이 거세어지던 상황이던 만큼, 자주의식은 시대적 요청이었다.

국문 사용이 지닌 전략적 성격은 애국 계몽기(1900~1910)에 이르러 보다 구체화

54) 「논설」, 「독립신문」. 1896.4.7.
55) 「논설」, 「독립신문」. 1896.4.7.

된다. 우선이 시기의 국문사용은 애국 계몽 운동을 이끌었던 신흥지식인들이 신학문을 도입●소개하는데 중요한 매체로 사용된다. 당시 애국 계몽 단체들은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많은 수의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의 교가과정에 국어문법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56] 애국 계몽 단체들이 발간한 기관지도 대체로 국문을 사용하고 있다. 애국 계몽 단체들의 활동으로는 신교육●문화●문학의 보급, 언론을 통한 국민 계몽, 민족산업진흥, 국채보상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민지(民智)를 개발하고 민력(民力)을 양성함으로써 자주 국가를 수립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만큼, 국문의 상용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애국 계몽기 신흥지식인들이 국문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몇몇 근거들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들은 국문과 국문을 통해서 보급한 신학문을 한문과 고학문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 있듯이, "상형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몽매한 것이고, 표음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개명한 것",즉 국문의 사용 여부가 몽매와 개명의 차이를 넣는다는 주장은 좋은 예이다. 이때 동원되는 논리는 당시 신흥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사회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이는 "문명열강이 오늘날 있게 된 것은 모두 신학문 때문" [57] 이고, "오늘날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인 것은 모두 舊學" [58] 이라며, 구학문을 공격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과격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신흥 지식인의 대부분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양반이나 중인계층 출신, 또는 관직의 진출이 어려웠던 황해도●평안도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문화적●정치적입지를 상승시키기 위한 이들의 욕구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한다. [59] 아울러 국문의 사용이 애국의 논리로 이어지는 것 또한 잊고 지나칠 수 없다. 이미 「독립신문」의 창간호 논설(1896)에서 국문이 우리 것이며, 한문은 외국의 것이라는 비판의식을 확인한 바 있지만, 애국 계몽기에 이르러서는 국문의 사용은 곧 경쟁시대에 필요한 애국적 정신보존 [60]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까지 지니게 된다.

이즈음 등장하는 국문연구의 등장하는 국문연구의 움직임 또한 국문연구가 민족계몽과 자강독립의 수단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국문운동에서 남다른 업적을 남긴 주시경의 국어관은 다시 국문연구의 사상적 배경을 파악하는데 좋은 예가 된다. 주시경에 의하면, 언어(文言)는 사회조직, 민지(民智)계발, 국정운영의 중요한 수단인데, 국민을 단합하게 하는 선결 조건이 언어의 정비 [61] 라고 한다. 또한

---

56) 이응백, 「자료-개화기 국어●한문 교육과정」. 「속 국어교육사 연구」, 신구문화사, 1988, pp.215~225. 박붕배, 「개화기의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전사」(상),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7,pp.37~154

57) 究新子, 「新學과 舊學의 區別」.「西北學會月報」, 1권 8호, 1909. 1. p.41.

58) 여병현 , 「新學問의 不可不修」, 「大韓協會會報」, 8호, 1908, 11.

59)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pp.47~55. 69~72. 83~85. 99~102.p.111

60) 이승교, 「國漢文論」, 「서북학회월보」, 1908.6. pp.20~21.

61) 주시경, 「必尙文言不修之禍」。「황성신문」. 1907.2.22.

그는 우선 인간이 天然으로 나누어져 모여 사는 집단이 사회이며, 나이가 이 天然의 사회로 국가가 형성되고, 동일한 언어에 의해서 민족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민족의 형성은 천연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자체의 독립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62)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주시경은 언어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는 한편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독립성까지 주장한다. 이는 더 나이가 "自國을 保存하며 自國을 興盛케 하는 道는 國語와 國文을 崇尙함이 最要" 하므로, "自國의 言과 自國의 文을 磨하여 光하며 求하여 補" 63) 해야 하며, "나라를 직히고져 하는 쟈는 제 말과 제 글을 유지하여 발달코져" 64)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주시경에게 국어와 국문의 연구는 바로 자국의 흥성과 보전을 위한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국문사용의 의의 또는 국문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 된 것은 갑오개혁(1894)을 통해 조선의 모든 공문서가 한문●국한문●국문으로 표기된 다음부터이다. 그리고 이후에 간행된 신문, 잡지, 각종 애국 계몽 단체의 기관지 등에서 보다 활발하게 논의된다. 주로 개화파, 애국 계몽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국문사용론자들은 한문이 남의 글이며, 국문이 바로 우리의 글이라는 논리로 국문보급을 추진한다. 예컨대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몬저 백화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배오는 법인대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배오드래도 한문만 공부 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지만, "조선국문이●●●조선글이나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백성을 한문대신 국문으로써야" 65) 한다는 <독립신문> 창간호의 논설은 좋은 보기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흔히 "漢文은 事物을 形容하는 圓式이나 義와 音이 異하야 通曉하기 至 難" 66) 하므로,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도보고 알아보기가 쉬홀터" 67) 라는 소박한 근거가 따른다. 그러나 국문사용론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문의 사용이 "친구간이나 편지래왕 하는대와 음풍영월 홀 제 글귀를 사다가 허문만 슝상하는 것" 68) 이라는 공격으로 이어진다. 이는 한문의 본질적 속성을 지적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 소위 腐儒에 대한 폄하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허문 숭상의 이면에는 "슈효는 적으나 한문 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모도 차지하야 그 남저지 전국 인민을 압제 하라는 풍속" 69) 임을 지적한 것으로 볼 때, 국문사용론자은 그동안 신분상의 우위, 문화의 독점을 가능하게 했던 '한문 사용'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는 한편, 중세적 질서체계를 해체하는 데까지 나아가려 한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한편 국문사용론자들의 이러한 논리는 "象形字를 川하는 世界는 何故蒙味하고 發音字를 用하는 世界는 何故開明한고 必是

62) 주시경, 「自國語文」, 「國語文典音學」, 박문서관, 1908.p.2.
63) 주시경, 앞의글, p.3.
64) 주시경, 「국어와 국문의 필요」 (雜俎), 「서우」 2호. 1907.1.p.32.
65) 「논설」, 「독립신문」. 1896.4.7.
66) 「國語漢文論」 (論說), 「皇城新聞」, 1898.9.28.
67) 「독립신문」 앞의 글.
68) 「론설」, 「제국신문」, 1900.1.7.
69) 「론설」, 「독립신문」. 1897.8.5.

文字難易를 因하야 人民의 知識優劣을 由하야 國勢强弱이 現하는니" [70] 라는 구절로도 알 수 있듯이, 국문의 사용이 開明의 길이며, 國勢를 기르는 길이라는 데까지 이른다. 당시 제국 열강의 압력이 거세어지고, 일본의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즈음에 등장한 자강운동의 과정에서, 국문은 대중을 계몽하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國文을 崇之하면 我國을 愛하는 者이오 漢文을 崇之하면 他國을 愛하는 者라" [71] 는 애국의 논리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국문의 보급과 사용의 폭이 넓어지면서, 국문의 연구와 국어사용의 체계화에 대한 논의도 등장하게 된다. 이는 표기체계의 교체에 따른 당연한 요구이며, 언어일반에 대한 지식의 확충과 아울러 국문 사용에 따른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석영의 「국문론」(1896), 이봉운 「국문정리」(1897), 주시경의 「국어문전음학」(1908), 유길준의 「대한문전」(1909) 등의 국문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1907년에는 학부(學部) 산하 기관으로 국문연구소가 개설되어 국문연구가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이즈음의 국문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사상은 계층과 지방에 따른 語品의 차이를 통일하는 것, 잘못된 한자 발음을 고치는 것, 下賤輩들의 속어●욕설을 없애는 것 [72] 과 "국문으로 옥편을 만드러 글자쓰는 법을 정" [73] 하는 것(문법제정)이었다. 특히 유길준을 비롯한 여러 사람은 대체로 大槪修二의 「小學日本文典」(1872), 中田義廉의 「小學日本文典」 (1874), 中根淑 「日本文典」 (1876) 등 일본 문전의 영향 아래에서 '문전(文典)'을 지어, [74] 국어●국문의 교육, 실제의 언문생활의 본보기를 삼으려 했으며, 이즈음부터 국어와 국문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4. 한국의 언문일치운동의 성립과 전개 양상

4.1 한국에서의 언문일치운동 이전의 문체들의 존재양상

한국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장은 그 문(文)의 종류의 차원에서 파악해볼 것 같으면, 국문(國文), 국한혼용문(國漢混用文), 그리고 한문(漢文)·영문·일문·불문 등과 같은 외국어문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한문, 이두, 국한문, 국문에 의해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 등이 기록되었다. 그것들이 그들의 표기수단으로 성립되어 나온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

70) 「國文漢文論」, 「皇城新聞」, 1989.9.28.
71) 이승교, 「國漢文論」, 「서북학회월보」. 1908.2.p.20.
72) 「言語可整」 (논설), 「황성신문」. 1900.10.9..
73) 「론설」, 「독립신문」. 1897.8.5.
74) 김민수, 「초기 국어문법과 일본 양학」, 「인문논총」 23. 고려대학교 인문대. 1977.4, pp.25~29.

다.

중국의 황하(黃河) 쪽으로부터 한반도에 한문이 전래되기 이전까지는 한민족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낼 어떤 문자를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반도인들은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됨으로써 그것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가게 되었던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한문이 중국으로부터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위만조선(衛滿朝鮮, 194~108, BC) 경부터로 보고 있다. 현존하는 최고의 것으로는 위만조선이 망하고 낙랑이 설립된 BC 112108년경에 쓰여진 고조선(古朝鮮)의 뱃사공 곽리자고(霍里子高)의 아내 여옥(麗玉)의 작으로 알려진 한시 「공후인」(箜篌引), 중국 대륙에서의 전한(前漢)이 후한(後漢)으로 전환해 나왔을 무렵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유리왕(瑠璃王, 19~18, BC)때의 한시 「황조가」(黃鳥歌)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 국초(國初)에 『유기』(留記) 100권이 쓰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이 한 대(漢代)에서 6조(六朝, 212~589)로 전환해 나왔을 무렵, 고구려에는 372년에 태학(太學)이 세워져 유교교육이 행해졌고, 동년에 중국의 전진(前秦)으로부터 불경(佛經)이 전해졌다. 또 백제에서는 근초고왕(近肖古王, 346~375)때 「서기」(書記)가 쓰여졌다. 그 후 신라에서는 진흥왕6년(545년)에 「국사」(國史)가 편찬됐던 것으로 되어있다. 한반도에서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본격적으로 수입해 쓰기 시작했던 것은 현존 향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진평왕대(眞平王代, 579~632)의 「혜성가」(彗星歌) 이후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은 BC 2세기 말경부터 한자·한문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6, 7세기부터는 그것들로 본격적으로 수입해 한문(漢文)으로도 자신들의 의사를 기록해 갔다. 이 경우 한자(漢子)란 중국의 황하유역지방에서BC 18세기경부터 시작되는 은(殷)의 갑골문자(甲骨文字), BC 12세기부터의 주(周)의 금석문자(金石文字)와 대전(大篆), 진(秦,진시황의 전국통일과 문자통일BC 221, 멸망은BC 202)의 소전(小篆), 전한(前漢, BC 221~AD 8)의 예서(隸書)와 후한(AD 8~222)의 해서(楷書) 등을 거쳐서 현재의 형태로 고정되어 나왔다. 한문이란 기본적으로 한나라 시대의 인간들에 의해 쓰여지던 말이 한자로 기록된 문장체를 가리킨다.

한국인에서의 한문은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해 봤을 때, 6, 7세기 경부터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되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그리고 그것은 15세기 중반 한글이 창제된 후에도 갑오경장까지 사대부(士大夫)의 대표적 표현수단이 되어 왔었다. 그 다음 한문이 한반도에서 쓰여지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구결(口訣)이 달려 사용되었다. 구결이란 한문에 붙여진 우리말 토씨이다. 그러다 그 구결이 달린 한문으로부터 이두(吏讀)라고 하는 표기법이 성립되어 나왔다. 이두란 한자의 음과 훈(訓, 새김, 의미)을 빌어 우리말 형태부분은 그것의 음을, 그 음의 의미부분은 그것의 새김을 취

해 우리말을 적어냈던 표기법을 가리킨다. 한문(漢文)이 고관(高官)들이 쓰는 문장이라면 이두(吏讀)는 서리(胥吏)들이 읽고 쓰는 문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의 성립은 고구려 초부터로 파악되고, 향가「혜성가」의 성립 전후를 기해 확립된 것으로 고찰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와 같이 이두 표기가6세기를 기해 확립되어 나와 당시 신라인들의 말들을 토씨까지 다 기록해 내게 됨으로써 고려시대로 들어와서는『균여전』(均如傳, 1075)에서와 같이 그것이 향찰(鄕札)이란 명칭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75] 또 그것이 그 시대로 들어와서는 공문, 관용문 등의 문체로 정착되어 나왔다. 그 후 이조시대에 들어와서 한글창제를 계기로 쇠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시 소송문, 고시문(告示文), 보고서 등의「관부의 공사문서(公私文書)」에서 19세기 말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76] 이 경우 이두(吏讀)와 향찰(鄕札)을 구분해 본다면, 「전자는 준(準)국문체이나 후자는 순(純)국문체」라 할 수 있다. [77]

국한혼용문의 경우는 한글 창제 이후에 형성된 문장체인데, 그 기원은 구결이 붙여진 한문과 그것으로부터 출현된 이두(吏讀)로부터 찾을 수 있다. 국문(國文)은 한글창제를 계기로 순수 한글로 쓰여진 문장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한글창제 이전에 쓰여져 왔던 향찰 계열의 문장이라 할 수 있다. 구어문(口語文)을 의미하는 언문(諺文)이라 했다.

한국인들은 일본어 문장이나 영어문장을 본격적으로 접하기 전인 19세기 말까지 이상과 같이 한문, 국한혼용문, 국문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왔었다. 한국인들은 그 후 20세기로 들어와서 이들 외에 일본어, 영어 등으로도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 등을 표현해 가기에 이른다.

19세기 후반 한국이 근대의 서구와 일본의 문물을 접하기 직전, 한국인들에 있어서의 대표적 문체는 역시 한문이었다. 근대 이전 한국사회를 주도해 갔던 사람들은 사대부(士大夫)들이었다. 그들의 일반적 의사소통문들은 한문이었다. 이두, 향찰은 주로 서리, 중인 출신들에 의해 사용되어졌었다. 한글 창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고, 갑오경장 때까지도 사용되었다. 국한혼용문은 한글창제 이후 성립되어 나와, 특히 한시나 한문 등을 번역해내는 데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나갔다. 그것은 그 후 차츰 이두・향찰문체를 몰아내고 그의 사용영역을 확대시켜나가, 영・정조 이후에 와서는 거의 전적으로 이두・향찰의 자리를 차지해 가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국문은 주로 일반 서민들과 궁중여성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던 글이었다.

4.2 언문일치운동의 발단과 국한혼용문

---

75) 한국인이 한문을 사용해 가는 과정에서 구결, 이두, 향찰 등의 표기법이 성립되어 나왔던 것은 한 국어가 중국어와 전혀 다른 종류의 언어이기 때문이었다.
76) 金性洙,『鄕歌 및韓國借字考』(청록출판사, 1980), p.141.
77) 상동서, p.152.

한국인들은 강화도 조약(1876) 이후 근대 일본과 서구의 문물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됨으로써 일본과 서구의 언문일치문들을 접하게 된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계기로 그때까지 그들의 가장 대표적, 공적 표현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한문을 버리고 그들 사회의 서민들이나 여성들이 사용해 왔던 '국문'을 전용하자든가, 국한혼용문장을 채택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주장들은 당시의 한국인들이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문 등과 같은 문어(文語)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구어(口語)와 유리되어 있었던 관계로 문어를 통한 의사전달이 당시 한국인들의 구어(口語)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언문(諺文)을 통해 의사전달을 행해가는 서민이나 부녀자 층에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언문일치운동은 「한성순보」(漢城旬{報, 창간1883년10월)의 국한문체 채용의 시도를 통해 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 후「한성순보」의 후신「한성주보」(漢城周報, 창간호1886년1월25일발행) 등을 통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언문일치운동의 발단으로서의 공문에서의 국한문체 사용의 최초의 시도는 조정의 관보「한성순보」를 창간할 당시 그 관보창간을 주관했던 박문국(博文局)의 주사(主事) 강위(姜瑋)에 의해 쓰여졌던 미발표 창간사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그것이 미발표 창간사로 끝나고 말았던 것은 당시 활자미비의 문제도 있었지만, 수구파의 반대가 그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78]

강위는 강화도 조약(1876년2월) 참석 이후 일본과 중국을 드나들었던 인물이다. 그가 창안했던 국한문체는 한문체에 궁중소설(宮中小說)의 구두언어(口頭言語)적 문장들을 섞은 것이었다. 그가 그러한 국한문체를 창안해 시도했던 것은 관보가 한문체로 쓰여지면 사대부 계급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신문의 본래 목적인 민중을 각성시킨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민(庶民)과 사대부 층이 함께 읽을 만한 그러한 국한혼성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한성순보」의 후신 격인「한성주보」가 국한혼용체를 취해 창간되어 나오게 됨으로써 언문일치운동의 근대적 기점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성주보」가 국한혼용체를 취해 창간되어 나오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성순보」의 창간은 일본의 민중교육의 선각자인 동시에, 일본에서 근대「국가주의(nationalism)의 원형(原型) 제출자」로 지목되고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79] 강화도 조약 체결(1876) 이후 한국은 몇 차례에 걸쳐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해 가고 있었는데, 제3차 수신사는 조정에서 개화파로 알려진 박영효(朴泳孝, 1861~1943), 김옥균(金玉均, 1852~1893) 등에 의해서

78) 崔埈,『韓國新聞史』(일조각, 1960), p.17
79) 中內敏夫『日本教育のナショナリズム』(第三文明社, 1985), p.142.

1882년8월에 행해졌었다. 그 전해에 고종의 특명으로 일본에 다녀왔던 김옥균은 한국의 빈약은 일반대중의 기술교육의 부재와 상층계급 인사들의 무지와 몰지각에 그 원인이 있다고 깨달은 나머지, 조선을 구하려면 민중을 교육시키는 것 밖에 없다고 주창해 갔었다. 박영효는 그런 주창을 하는 김옥균과 동행해 일본에 건너가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났다. 그들은 후쿠자와로 부터 개화문명과 국정개혁 등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그때 그들은 그로부터「국내민중을 계몽시키려면 신문을 창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80] 귀국 후 박영효는 한성판윤(漢城判尹)이 되어 신문창간을 착수하였고, 후쿠자와의 추천으로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1860～1938) 등이 한성에 나타나게 됐던 것이다. 그 결과 총리아문(總理衙門) 박문국(博文局)에서, 임오군란(1882) 후 조선정부의 고문이 된 이노우에 가쿠고로를 주재(主宰)로 하고, 강위(姜瑋 등을 주사(主事)로 해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었던「漢城旬{報」가 창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듬해인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수구파들이 박문국사(博文局舍)를 습격해 불을 질러버림으로써 더 이상 신문을 낼 수 없게 되었다. 갑신정변 중 박문국사는 물론, 일본공관도 소실되는 동시에 일본인 다수도 사살당했던 탓으로 일본은 그 책임을 물어 그 이듬해인 1885년1월 한국과 한성조약을 체결한다. 조약체결은 내한한 일본의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 의해서 행해졌고, 그 현장에 일본의「지지신포」(時事新報)의 기자를 겸하고 있던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도 나타났었다. [81] 그후 이노우에 가쿠고로는 박문국 주재(主宰)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문부활에 힘써가게 된다. 그는 민중계몽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신문이 다시 나와야 한고, 복간될 경우 한국인의 글인 한글로 쓰여져야 한다고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해 갔다.

그 결과 그는 당시 외아문협변(外衙門協辦) 김윤식의 주선으로 고종의 윤허(允許)를 얻어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일본에서 새로 기계와 활자를 구입해 그해12월 그러니까 1885년 복간활동을 개시하여, 김윤식을 총재로 해서「한성주보」(漢城周報, 창간호1886년1월25일)가 국한문혼용체를 취해 창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에 있어서의 한국인 고유의 한글문장이란 국한문혼용체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의 한나라 시대의 말이 기초가 되어 성립된 한문이 공적 문장으로 통용되었고,「국한혼용문」,「국문」등이 사적 문장으로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일본에서는 한국의「국한혼용문」에 해당되는「화한혼용문」(和漢混用文)이 헤이안(平安)시대에 성립되어 나와 그때 이래 공적 문장으로 통용되어 왔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

80) 상동서, p.14.

81) 「「지.지.신.포.」」(時事新報), 1882년3월1일게이오기쥬쿠<慶應義塾>출판사로부터창간된일간신문.후쿠자와유키치의지도하에서「추구할것은국권신장하나밖에없다.<求める所は國權興振の一點にあるのみ>」는입장에서창간된신문.(창간사참고) 1995년「산케이신문」<産經新聞>에합병.

당시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한성주보」의 문체로 채택한 「국한혼용문체」는 설혹 그것이 한국인들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본의 「화한혼용문체」로부터 모방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이노우에 가쿠고로로 말할 것 같으면 중국의 한문에 눌려 사적 문체로 밖에는 그 역할을 행해가지 못하는 한국의 「국한혼용문체」로 생각했던 것이었다. [82]

사실상 강위는 한문으로 쓰여진 「한성순보」가 발행되어 가는 도중에도 국한혼용문에 의한 기사체(記事體)를 연구해 갔었다. 그는 「환관(宦官)을 통해 내인(內人)들이 소장하고 있던 여러 언문(諺文)서적들을 입수해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국한혼용문의 새 문체를 만들어 보았던」 [83] 이노우에 가쿠고로는 강위에 의해 연구되어 만들어진 그 국한문혼용문체를 「한성주보」의 기사체로 채용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은 일본인의 주도 하에 행해졌던 「한성주보」의 국한문혼용문체 채용을 계기로 해서 시발되었다. 「한성주보」의 국한문혼용문 채택 이후의 국한문혼용문체는 당시 민씨일파인 수구세력의 압력에 의해 1888년 박문국이 폐지됨으로써 「한성순보」도 폐간되어 더 이상 일반화되어 나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청·일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몰려들었던 일본인들이 한국에 정착해 1894년 일문 신문 「한성신보」(漢城新報)를 창간하였고, 이어서 1895년 1월 22일부터는 국문판 「한성신보」를 격일간으로 발행해 간다. [84] 그것과 때를 같이 해, 1881년 도쿄에 유학한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의 『서유견문』(西遊見聞, 1895)이 국한혼용문으로 간행되어 나와 널리 읽혀지게 됨으로써 국한혼용문은 한층 더 일반화되어 나왔다.

유길준은 1880년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기쥬쿠(慶應義塾)을 거쳐 도미, 워싱턴·보스턴 대학 등에서 수학하고, 유럽 각 국을 거쳐 1884년에 귀국했다. 그는 귀국 이후 갑신정변으로부터 화를 당해 6년 간의 구수(拘囚)생활을 겪으며『서유견문』을 저술한다. 그가 본서 저술시 국한문체를 택한 것은 본서를 일반 민중들에게 널리 알려서 민중의 지혜를 계발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4.3 언문일치운동의 확립과 숙어문운동

국문을 바르게 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일찍이 국문법 연구에 착수한 이봉운의 경우에 있어서 「문법이란 글이 말과 다르게 표기하는 규칙」으로 규정하였다. [85]

---

82) 여증동, 「19세기"한자-한글섞어쓰기" 줄글에대한연구」(『한국언어문학15집』, 1977, p.4 참조.

83) 崔埈, 『韓國新聞史』 p.28.

84) 이에앞서각개항지에진출한일본인들은부산에서「朝鮮時報」(旬刊, 1881년12월10일창간),인천에서「朝鮮 週商報」(週間, 1889), 목포에서는「木浦新報」(旬刊, 1898. 8) 등의일본문(日本文)신문들이나타났다. (崔埈, 『韓國新聞史』, p.28 참고).

그 후 국문법론자들은 당시의 우리말의 법칙을 국문법으로 규정해 가게 된다. 그러한 움직임은 『혈의 누』(1906) 등과 같은 신소설의 창작, 안국선(安國善)의 『연설법방』(演說法方, 1907)의 출간 등으로부터 출발되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연설법방』은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려면 연설자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청중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 신소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홍길동전』등과 같은 순국문 소설의 계열로부터 출현된 것으로서 설혹 그것들이 글로 쓰여진 것이기는 하나 작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해 가는 서술 형식을 취해 쓰여진 것으로 고찰된다.

그 후 논자들의 말에 대한 관심은 최남선의「소년」(1908. 11～1911. 5), 『시문독본』(1916) 등을 통해서 구어(口語)에 대한 관심 쪽으로 확장되어 나왔다. 「소년」(少年)은 한국 최초의 잡지이다. 2차에 걸쳐 일본 유학을 행했던 최남선이 귀국해 창간한 월간 계몽지이다. 당시 19세의 최남선은 창간호「소년」에 「해에게서소년에게」등과 같은 한국 최초의 신체시의 발표를 통해 당시 한문투의 문장을 지양하고 구어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어체 문장을 성립시켜 나갔다. 후자의『시문독본』에서의 「시문」(時文)이란 당시의 시대적 감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문장이란 당시의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말들을 기록한 문장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언문일치의 추진자들의 언문일치의 문장 작성의 한 방법으로서의 일상어에 대한 관심은 당시의 도쿄 유학생들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예컨대 그것은 1904년 도쿄 유학을 떠났다가 3개월만에 돌아와 2년 후에 재차 도일해 그대로 얼마 못 있고 다시 귀국해 그 이듬해 출판사를 차려『소년』을 간행했던 최남선을 비롯하여, 이광수(李光洙, 1892～?), 최승구(崔承九, 1892～1917), 김동인(金東仁, 1900～1951)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광수는 1905년 도일해 그 해11월에 귀국했었는데, 다시 그 이듬해 도일해 1910년에 귀국한다. 그는 정주 오산학교 교원으로 있으면서 그 해 구어체의 새문장으로 단편『무정』을 「대한흥학보」에 발표하고, 최남선의「소년」에도 구어체로 글을 발표해 갔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1914년4월에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 학우회 기관지「學之光」(학지광, 1930년4월 종간, 연 2회)이 창간됐다. 보성전문학교를 거쳐 1910년에 도일해 게이오대 예과 과정을 수료한 시인 최승구(1892～1917)는 「학지광」제2호(1914. 9)의 「정감적생활의요구」(情感的 生活의要求), 「남조선의신부」(南朝鮮의新婦) 등을 통해서 거의 완벽한 구어체 문장을 형성시켜 나갔다.

구어체(口語體)문장이란 기록자가 처해있는 당시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의 말을 그대로 기록해 낸문장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구어체 문장의 대립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문어체(文語體)문장은 기록자가 처해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시대의 인간들의 말을 기록한 문장들이다. 따라서 구어체와 문어체와의 가장 큰 차이는

8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4권』(지식산업사, 1986), p.239.

단정의 표현과 시제(時制)의 표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의 그것들은 문말(文末)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구어체의 확립을 가능케 했던 그러한 단정과 시제의 표현이 이청원(李靑原)도 주장하고 있듯이, 「학지광」에 게재된 최승구의 그러한 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 확립된 구어체 문장은 1916년에 다시 도일해 유학 중이던 이광수가 구어체로 쓴 장편『무정』을 1917년1월1일부터「매일신보」에 연재해 감으로써 더욱 일반화되어 나왔다. 그러다가 1919년2월 김동인에 의해 한국 최초의 종합문예동인지「창조」(創造, 창간호에서 제7호까지는 도쿄에서, 제8호와 제9호는 서울에서 간행)가 창간되어 그의 단편소설『약한자의슬픔』등이 구어체로 쓰여지게 됨으로써 구어체가 완성되어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의 현대 언문일치체문장은 그것이 한문체로부터 벗어나서 국한혼용문체로, 또 국문사용운동, 속문사용운동 등을 통해 확립되어 나왔던 것이다.

5. 국어 • 국문운동의 양상과 특징

국어국문운동은 한 마디로 한문체에서 국문체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종의 '문체의 혁명'이라 볼 수 있다. 개화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문물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자, 종래의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문자사용은 공용문서에서 한문을 전용해 오던 전통(일부 예외는 있음)에서 벗어나 국어애용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자신의 언어인 국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면으로 관심이 바뀌어다. 국어를 사랑하자는 운동은, 무엇보다도 그 동안 諺解類 등에서만 쓰이어 왔던 국한문혼용체를 널리 쓰자 거나, 국어전용 또는 언문일치생활을 하자는 운동으로 번져 나가게 되어, 우리 국어에 관한 연구와 체계적인 정서법 마련 동에 마음을 쏟게 되었다.

5.1 국어 국문운동과 문체의 발달

이 시기의 국어 • 국문운동이 얼마나 강렬했던가는 이봉운이 당시 이미 순국문으로 저술된 『국문정리(國文整理)』(1897)의 서문에서, 세계 각국이 다 제 나라 제 글을 쓰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국어 • 국문 애용이 곧 애국이라고 力說한 대목에 잘 나타나 있다. [86] 또 주시경은 언어가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회를 조

86) 강신항(1992), 『국어학사』, 보성문화사, pp. 184~185.

직하며 문화를 만들어 내고, 문자가 이를 지역적 . 역사적으로 傳承하여 인간의 '大事'인 문화적 . 사회적 업적을 축적하여 인간생활을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이 언어가 조직하는 社會一般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조직된 것이 민족이며 민족이 독립된 것이 국가라고 보는 것이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문자의 독립이 민족 국가의 독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민족 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언어와 문자가 갖는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한국의 독립과 발전이 국어 . 국문의 연구 발전 보급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아 그의 독특한 語文民族主義思想을 전개하게 되었다. [87]

국어 . 국문 애용 운동의 先驅者는 유길준이었다. 그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學部大臣으로 있으면서, 1894년에는 '모든 법률과 명령을 모두 국문으로써 본을 삼고 漢譯을 附하며 혹은 국한문을 混用함' 이라는 칙령[88]을 발령하도록 하였으며, 1895년에는 스스로 국한문혼용체로 된 『西游見聞』(실제로는 1889년에 완성되고 1895년에 간행되었다.)을 저술하는 한편 학부에서 편찬하는 교과서도 국한혼용체로 하도록 하였다. 1885년(고종22년)에 서양 선교사가 설립한 배재학당을 비롯하여, 1895년 이후 京鄕에 많이 설립된 각종 國公私立學校에서도 국어를 중요한 과목으로 가르쳤는데, 다른 교과서들도 국한문혼용체의 글이었다. 한편 같은 해에 James S.Gale의 『텬로력정』이 국문체로 간행되고 그 이듬해에 學部의 『泰西新史』가 한문본과 국문본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1986년에 서재필, 윤치호 등을 중심으로 창간한 『독립신문』은 국문만으로 발행된 신문이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있어 하나의 대담한 실험으로 한국 문자 사용의 역사에서 特記할 만한 사실의 하나였다. 온지면을 漢字가 한 글자도 없는 순국문으로 채움으로써, 갑오경장 이후 名目上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문체로 지목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던 국문체의 기세를 드높인 것이다. 아마 서재필과 주시경이 아니었더라며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대담한 시도였다. 주시경이 이 신문사의 '總務兼校補員'의 일을 맡고 있었으니 이 신문의 국문은 사실상 그가 도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배재학당 학생들의 모임이었던 협성회의 기관지인 『협성회회보』(週刊)가 1898년 1월에 간행되고 4월에 『매일신문』 (일간)으로 발전했으며, 같은 해 3월에 독립협회장 윤치호가 『경성신문』 (주 2회)을 창간하고(4월에 『대한황성신문』으로 改題) 8월에는 李鐘一이 『대국신문』을 창간하였다. 이 모든 신문이 국문체를 택함으로써 신문의 문체는 국문체로 굳어지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1898년 9월에 『대한황성신문』이 『황성신문』으로 改題되면서 국한문체의 일간지로 탈바꿈하였다. 이것은 장지연, 유근 같은 유학자들이 관여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겠지만, 이 때에 관용 공문을 비롯하여 학교 교과서 등에 널리 사용된 국한문체가 신문에 침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신문 독자층들

87) 신용하(1977), '주시경의 애국계몽사상'. 『한국사회학연구』 제1집 참조.
88) 1894년 11월에 고종이 내린 칙령을 말한다. 뒤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이 대부분 한문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이들의 취향에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몇 해 동안 한국의 신문에는 국문체와 국한문체가 양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1904년 8월 국한문체를 채택한 『大韓每日申報』가 간행됨으로써 그 뒤 한국 신문의 문체를 국한문체로 기울게 하였다. 이는 국한문체 신문과 국문체 신문의 독자층이 달랐던 것인데, 국한문체의 독자층이 유력했다고 하겠다. 하지만 국문체의 독자층도 무시할 수 없었으므로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5월에 국문판을 따로 발간하였다. 이 국문판이 국한문판에 附隨的인 것이었고 계몽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는 했으나 그것을 낸 것은 국한문체만으로 진정한 민중의 벗이 될 수 없음을 이 신문 刊行者들이 깨달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잡지는 대부분이 국한문체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특별한 뜻으로 국문체의 글이 실리기도 하였다. 西友學會의 원간호 『西友』(2호, 1907)에 실린 주시경의 『국어와 국문의 필요』를 비롯한 몇 예를 들 수 있다. 尙洞靑年會의 『가뎡잡지』는 완전히 국문체를 채택하였다.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였음이 그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諺文이 부녀자의 글이라는 전통적 통념에 부합되는 것이다. 최남선이 간행한 『少年』에 국문체의 글이 많이 나타남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제1년 제1권에 실린 『巨人國漂流記(一)』은 국한문으로 되어 있으나 2권의 『巨人國漂流記(二)』는 국문으로 되고 괄호 속에 한자가 표기된 사실이 주목된다. 그러나 제2년 제2권에 실린 『로빈손 無人絶島 漂流記』는 국한문으로 되어 있다. 이 두 잡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그들이 한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官用 公文에서는 1894년 11월 고종이 내린 칙령(法律勅令 總之國文爲本 漢文附或混用國漢文)에 의해 명분상 국문의 위상을 드높였고, 이듬해 5월 개정된 칙령에서는 "法律勅令은다國文으로써本을삼고漢譯을附하며或國漢文을混用홈"과 같이 법령 자체를 국한문으로 발표하여 국한문 혼용의 典範을 보여줬다. 이 두 번째 칙령에 의하여 한글이 비로소 한국 사회의 공용 문자의 구실을 항 수 있었다.[89] 이 칙령은 사실상 公文式의 단일화에 실패한 것이다. 그 文面으로 보아 그 뒤 주로 국문체가 관용 문서에 사용되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어야 했을 터인데, 이런 노력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안다. 새 시대의 흐름이 거세었지만, 여전히 한문이 사용되었고, 국문체는 처음에는 상당히 사용되었으나 차츰 그 사용이 위축되어 갔다. 그리고 하나의 추세로서 국한문체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갔다. 1908년 2월 6일 『官報』(3990호)에 실린 『官廳事項』은 그 무렵의 관용 공문의 실태를 잘 보여 준다.

從來 公文書類**에** 使用ᄒᆞ**는** 文字**를** 國漢文**을** 交用**치 아니**ᄒᆞ**고** 或純漢文**으로** 調製

89) 고영근(1983b), "개화기의 한국 어문운동 국한문혼용론과 한글전용론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25집, p.7.

ᄒᆞ**며** 吏讀**를** 混用ᄒᆞᆷ**이** 已違規例**이옵고** 且外國人**으로** 本國官吏**된** 者**가** 或其國文**을** 專用ᄒᆞ**며** 一般 解譯上**에** 疑誤ᄒᆞᆯ 慮**가** 有ᄒᆞᆯᄲᅮᆫ**더러** 規式**에** 違反**되겟습기** 左開 條件**을** 設定 施行ᄒᆞᆯ 事**로** 閣議**에** 決定ᄒᆞ**야** 內閣 總理大臣**이** 各部**에** 照會**를** 發**홈**

一 各官廳**의** 公文書類**는** 一切**히** 國漢文**을** 交用ᄒᆞ**고** 純國文**이나** 吏讀**나** 外國文字**의** 混用ᄒᆞᆷ**을** 不得**홈**

一 外國 官廳**으로** 接受ᄒᆞᆫ 公文**에** 關ᄒᆞ**야만** 原本**으로** 正式 處辨**을** 經ᄒᆞ**되** 譯本**을** 添付ᄒᆞ**야** 存檔**케 홈**

이 의결 사항은 그 당시 公文書類의 문자 표기에 큰 혼란이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이 때에 와서는 위에 인용한 1894년의 칙령이 완전히 잊혀져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마치 國漢文體가 유일한 합법적인 문체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때에 와서 '純國文'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충격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官廳 事項'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때의 관리들 중에는 아직도 '순국문'을 쓰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한문혼용체'로 공문서의 형식을 통일하려는 것이 이 '官廳 事項'의 主旨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소설은 국문(언문)으로 표기되었고 시(시조나 가사)에는 한자가 혼용되어 왔다. 이 전통이 개화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적어도 소설의 문체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은 속단임을 면치 못한다. 20세기의 처음 20여년간 한국 소설의 문체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것이다. 이 진통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소설이 경험한 전통의 단절에서 온 것이었다. 전통이란 단절될 수 없는 것이요, 이른바 신소설 이후의 작품들이 크게 보아 고전소설의 전통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들이 이런 전통적 인식보다는 일본의 模型에 사로잡힌 결과, 문체에 있어서까지 일본의 것은 본뜨게 되었던 것이다.

이인직은 1906년『萬歲報』에 제목이 있는 '소설 단편'을 連載하면서 국문과 한자를 혼용했는데 그 첫머리에 '이 소설은 국문으로만 보고 한자음으로는 보지 말으시오.'라 註記하고 있다. 이제 그 한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읏더 좁은길 저리꾸버러 이리꾸부러 / 가다보면 마친길 뚤린길

何如ᄒᆞᆫ 来路**이** 彼曲**지고** 此曲**져서 /** 行看則窮路 **오가셔 보면 또** 通路**이라.**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후리가나'(한자 옆에 讀法을 표시하는 글자를 적음) 방법을 따른 것이다. 음으로 읽거나 새김으로 읽거나 구별하지 않고 그 독법을 小活字로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이인직이 소설을 일본에서 배웠음을 말해 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같은 해에 『血의淚』를 만세보에 발표했을 때에도 이인직은 이와 같은 표기를 채택했었다. 이늠해(1907) 이 작품을 金相萬書鋪에서 책으로 간행했을 때에는 한자는 모두 빼고 국문체로 고쳤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지니

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편소설이 이 뒤에 예외 없이 국문체로 표기된 것은 결코 우연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로써 장편과 단편이 표기상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되었음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90)

단편소설이 오랫동안 국한문체에 의해서 지배된 사실은 문자사용의 역사에서 특기되어야 할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광수는 『少年』에 발표한 『獻身者』(3년 8권, 1910), 『靑春』에 발표한 『金鏡』(2, 1914), 『少年의悲哀』(8, 1917), 『이린 벗에게』(9, 10, 11, 1917) 등을 모두 국한문체로 썼다. 1917년 『每日新報』에 연재한 장편소설 『無情』에서는 첫 회부터 완전한 국문체를 택하였고 『開拓者』의 경우에도 그랬는데, 단편을 쓸 때에는 국한문체를 택했던 것이다. 이는 그 뒤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편소설에서 국문체가 확립된 것은 1924년 이후의 일이다. 91)

여기서 하나의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장편소설에서는 일찍 국문체가 확립되었는데 단편소설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장편은 고전소설과의 연결이 직접적이어서 국문체의 전통을 곧 이어받게 되었으나, 단편은 西歐文學에서 들어온 새로운 형태로서 한국 소설의 전통과 잘 연결되지 않았고, 그 압축된 형식에는 국한문체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 것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단편소설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 왔는데, 일본에서 한자를 혼용한 사실에서 영향을 받았음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신문●잡지, 관용공문, 문학작품(소설) 등에서 국한문혼용체 혹은 국문체 등으로 새로운 문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한문체를 누구보다도 먼저 主唱한 사람이 유길준임은 앞서 말한 바 있다. 그가 이 문체의 근거를 한국의 『七書諺解』에 두었음을 자신이 말하고 있으나, 그가 일본의 문자사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의 증거로 그가 한자를 '訓讀'할 것을 주장하고, 실제로 그가 저술한 『勞動夜學讀本』(1908년 7월)에서는 모든 문장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사람 하날 따 신령

人**은** 天**과** 地 **사이에 가장** 靈ᄒᆞ**니라**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이인직의 초기 신문 소설의 문체와 일치하는 것이다.

국한문체의 발달에 주목할 만한 주당을 한 것은 이광수였다. 그는 일찍이 李寶鏡이란 이름으로 『太極學報』(21호, 1908년 5월)에 쓴 '國文과 漢文의 過渡時代'에서

90) 이기문, 앞의 글, pp.68~75 참조.
91) 이기문, 앞의 글, pp.74~75 참조.

세 기능성 (1. 漢文 專用, 2. 國文과 漢文 竝用, 3. 國文 專用)을 제시하고 "一時의 困難"을 무릅쓰고라도 '3'을 택하는 것이 善策임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1910년 7월에 『皇城新聞』에 기고한 '今日 我韓用文에 對ᄒᆞ야'에서는 국한문체를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광수는 국어문장에 관한 관심이 至大하여 '文學이란 何오'(매일신보, 1916년 11월)와 '懸賞小說 考選餘言'(靑春 12호, 1918년 3월)에도 그의 주장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두 글에서도 그는 "한문에 국문으로 吐를 단 듯한" 당시의 국한문체를 비판하고 '時文體' 즉 현대어를 그대로 글로 쓸 것, "國漢文을 用하더라도 말하는 模樣으로 最히 平易하게 最히 日用語답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문체의 발달에 누구보다도 크게 공헌한 사람은 주시경이었다. 그가 『독립신문』의 국문을 직접 담당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 신문에 발표한 '국문론'에서 국문체의 理論的 根據와 그 발전을 위한 의견을 말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는 여기서 국문으로만 쓰는 것의 이득을 여러모로 설명하고.

한문을 아는 사ᄅᆞᆷ일지라도 한문의 음만 취ᄒᆞ야 써서 노은 고로 혼히ᄌᆞ면 일곱이나 여덟은 몰으나니 차아리 한문 글ᄌᆞ로나 쓸 것 ᄀᆞᆺ트면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나 시원이 뜻을 알 것이다. 그러나 한문을 몰으는 사람에게는 엇지ᄒᆞ리오. 이런즉 불가불 한문 글ᄌᆞ의 음이 조선말이 되지 아니ᄒᆞᆫ 것은 쓰지 말아야 올을 것이요.....

그는 먼저 한문을 그대로 국문 국문으로 옮겨 놓은 듯한 그 당시의 국문체 문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서 한국말이 된 한자어만을 써야 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즉 '강(江)'이나 '산(山)'과 같이 이미 국어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문체는 국어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니 言文一致를 이룩하는 기본적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5.2 정서법의 확립과 국어 • 국문정리운동

개화기 이후 날로 國文愛用熱이 높아지자 제일 먼저 눈에 뜨인 것이, 16세기 以來로 통일 없이 내려온 순국문체의 표기 방식이었다. 이에 통일을 기하고자 제일 먼저 提議된 것이 姜瑋(號 古懽子 또는 秋琴)의 『擬定國文字母分解』(1869)였으며, 그 뒤를 이어 李鳳雲의 『국문정리』(1897)가 나왔다. 여기는 李鳳雲의 『국문정리』부터 시작하여 전개된 정서법의 확립과 국어 . 국문정리운동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5.2.1 이봉운의 『국문정리』

『국문정리』(1897)의 내용은 크게 '소리'와 '말본'의 두 대목으로 갈라지나, '소리'의 연구도 결국은 表記法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는 평소에 우리 국민들이 문명개화하는 때에 갖는 국어●국문관이 낮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맨 처음에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을 구하려 힘쓰는데 , 하물며 자기 말을 배우지 않음이 얼마나 수치일까 하고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인을 교육시킬 적에는 한국말과 서양인들의 말과의 차이점을 발음기호에 두고, 한국말에 짧은 소리표나 긴 소리표가 없는 대신 傍點表나 글자 위에 '-'표를 하여 장음임을 구별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諺文玉篇의 편찬으로 국문의 이치와 자모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 行文하도록 하였다.

.....문명의 제일 요긴한 것은 국민인데 반절이치를 알 사람이 적기로 이치를 궁구하여 언문옥편을 만들어 조야에 발행하여 이왕 국문을 안다하는 사람도 이치와 자음과 청탁과 고저를 분명히 알아 行文(作文)**케 하고 동몽도 교육하면 한국 글이 자연 밝을 것이요, 독립 권리와 자주사무에 제일 요긴할 것이니.....** 92)

이와 같이 국문을 아는 사람도 子母의 理致와 음의 淸濁, 음의 高低, 발음기호의 차이점을 분명히 파악하여 일상생활에 활용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아울러 이는 국어●국문의 普及과 국어●국문정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活力素가 되었다.

5.2.2 윤치호의 옥편편찬

국어●국문정리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국문옥편편찬이 급선무임을 주장한 사람은 주시경 외에 윤치호가 있다.

독립신문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그는 신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실생활에 국어를 활용하도록 국문옥편편찬을 示唆하였다.

.....조선사람들이 조선말을 공부한 일이 없는 고로 쓰기를 규칙없이를 하니까 대단히 모호하고 착란나는 일이 많이 있으되, 만일 말을 공부를 하여 국문으로 옥편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옥편을 가지고 사람마다 공부를 하여 전일한 규모가 생길 터이니..... 93)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 있는 국어운동가 뿐만 아니라 외국 선교사들도 공통적으로 時急하게 느꼈다. 그 중 게일(James S. Gale)은 한국말을 수년 동안 연구한 결과, 조선어와 영어를 실은 옥편을 1,300여장에 이르는 尨大한 책으로 엮어 조선어 밑에 영어로 주를 내고 책 끝에는 各色 긴요한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

5.2.3 주시경의 국문론

92) 『獨立新聞』 1897년 3월 1일자 廣告面
93) 『獨立新聞』 1897년 5월 27일자 雜報面

『독립신문』에 『국문론』을 게재한 주시경은 22세 때부터 배재학당 내 학생들 조직인 '협성회'의 典籍 몇 著述員을 지냈으며, 또한 독립협회에도 가입하여 독립신문사 會計事務兼 校補로 일했다.

1896년 5월 신문사 안에 '國文同式會'라는 이름으로 국어•국문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회를 조직하여 정서법의 통일 등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897년 4월 22일자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독립신문』에 낸 논설에서 국어를 존중하고 한문이나 영문보다 우수한 글인 국문을 사용하자고 주장하였으면, 그 이후 1905년 상동 교회의 청년학원 강사를 시작으로, 한국 말, 글의 연구, 교육, 정리 및 보급 운동에 모든 정성을 쏟았다. 1908년에는 동지들과 '국어 연구 학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국어 연구에 역사적인 큰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탁월한 수제자들을 많이 길러 내었다. 그러나 아깝게도 1914년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대한국어문법』(1906), 『國語文典音學』(1908), 『국어문법』(1910), 『조선어문법』(1911), 『말의 소리』(1914) 등의 많은 저술들을 남겼는데, 국어에 간한 이론적이며 실제적인 문제를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연구했다. 기본방향은 국어연구의 민족적인 사명을 확인하고 재래의 성운학과 서양의 문법학을 수용한 토대위에서 국어의 현상을 그 자체로 해명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자는 것이다. 주시경은 주권이 나날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독립을 수호하는 데 국어운동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밝히는 이론도 몇 차례 전개했다. 『국어문법』에 이르러서는 한 나라가 독립을 이루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이 영토•국민•언어라고 하고 "其域은 獨立의 基오 其種은 獨立의 體요 其言으니 獨立의 性이라"고 그 세 가지 기본 요건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곧, 영토는 독립의 터전이고, 국민은 독립의 주체이며 언어는 독립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보아 "其國家의 盛衰도 言語의 盛衰에 在하고 國家의 存否도 言語 存否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런 관점을 어문생활의 실제 문제와 깊이 연결시켜, 국문을 공식적인 글로 채택하면서도 문법이 정비되지 않고, 표기법이 혼란되어 의사 전달에 지장이 많다는 점을 심각하게 염려했다. 주시경은 우선 순국문으로 글을 통일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한문에 의거하지 않고 어문생활을 원활하게 하자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순국문 문장의 모법적인 예를 보이고자 했는데, 나중에는 한자어를 고유어로 대치하는 시험이 지나쳐서 널리 이해되기 어려운 독특한 표현을 하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하지만 띄어쓰기를 정착시키고 표기법 제정하려고 한 점, 새로운 술어를 창안하고 서양에서도 제안되지 않은 독창적인 이론을 전개한 점, 말하는 소리의 특징을 추출하고 '홀소리'와 '닷소리'의 결합방식을 분석한 점, 품사론과 통사론의 양면에 걸쳐 문법연구를 정밀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대언어학의 '形態素'의 개념에 가까운 의미의 최소 단위 '늣씨'를 발견한 점 등은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주시경의 노력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문을 가다듬어 독립을 수호하자고 주장하는 동안에 국권을 상실했으며, 강습회를 열어 국문 사용을 가르치는 데 계속 열을 올려도 누적된 혼란을 시정할 수 없었다.

5.2.4 국문연구소의 국문연구

1905년에 지석영의 『新訂國文』이 국가적으로 공식 제의된다. 당시 醫學校의 교장이었던 지석영은, 표기법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에 『신정국문』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光武 9년(1905) 7월 19일에 학부의 공식 법령으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인 표기법을 공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9개 항목에 걸쳐 五音의 명칭과 象形制字를 설명하고, 중성 11자 중에서 'ㆍ'를 없애는 대신 'ㅡ'를 새로 쓰자고 하였다. 또 'ㅂ된소리'를 쓰지 말고, 방점은 'ㆍ'(一點)과 '無點'으로 고저를 표시하여 전자로 상성과 거성을, 후자로 평성과 입성을 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표기법이 느닷없이 공포되자 크게 물의를 일으키어 정부에서도 학부 안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국문연구소는 『신정국문』이 공포된 지 2년 후인 1907년 7월 8일에 당시 학부대신이었던 李載坤의 주청으로 학부의 한 기관으로 설치된 것이다. 학무국장 尹致昊를 중심으로 어윤적, 이능화, 이억, 주시경, 이종일, 지석영 등이 위원이 되어 정서법 확립을 주목적으로 하고 국문자에 대하여 연구였다. 연구의 대상은 훈민정음(문자)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였다. 이것은 당시까지 통일성 없이 표기되어 온 국어의 정서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문자와 그 운용, 그리고 그 뒤의 변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국문연구소는 1909년(隆熙3년) 12월 27일까지 약 2년 반 존속되어 『國文硏究議定案』이라는 제목으로 통일된 보고서를 마련하였는데, 토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아. 곧, ①국문의 淵源과 字體及發音의 沿革, ②初聲中 ㅇㆆㅿ◇ㅱㅸㆄ 八字의 復用當否, ③초성의 ㄲㄸㅃㅆㅉㅉ 六字 竝書의 書法 一定, ④中聲中ㆍ字 廢止, ⑤종성의 ㄷㅅ 二字用法及 ㅈㅊㅋㅌㅍㅎ 六字도 종성에 通用當否, ⑥자모의 七音과 淸濁의 구별 如何, ⑦四聲標의 用否及國語音의 高低法, ⑧자모의 音讀 一定, ⑨字順 行順의 一定, ⑩綴字法 등이다. 이와 같이 정서법에 관한 議題가 주였다. 이 안은 당시의 국내 형편으로 곧 공포되지는 못하였으나 그 원칙은 대체로 지켜져서,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할 때에 반영되었다. 즉, 주시경이 주장하여 국문연구소안으로 종합되었던 정서법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음소적 정서법(phonemic orthography)이 아니라 형태음소적(morphophonemic orthography) 정서법이었으며, 이것이 『통일안』의 기초가 된 것이다.

6. 한글전용vs한자혼용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을 계기로 한글 전용과 국·한 혼용에 관한 시비가 계속 되어 왔다. 그리고 얼마 전 정부에서 한자 혼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뒤 한글 전용이냐, 한자 혼용이냐 하는 해묵은 문제로 또 다시 사회적 논란이 거듭됐다. 정부 수립 이래 1948년 10월에 법률 8호로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 전달의 통로로서 한글만 쓰기를 규정하는 문제로 표면화되어 이 문제가 심심치 않게 사회 문제화돼 관계자들 의견이 엇갈리고 그에 따라 정부의 문자 정책이 갈팡질팡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신문에서는 대부분이 한자 혼용이며 최근 한겨레신문만이 겨우 한글 전용으로 첫선을 보인 상태이다.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전달의 통로를 어디로 잡느냐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민족의 말과 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6.1. 한자 혼용, 꼭 필요한가

한자는 우리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말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는 있다.

나날이 높아지는 한국의 위상과 발맞추어 한국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시각이 상향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어의 국제적인 입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각 대학 기관을 중심으로 한 여러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알 수 없는 상반된 관계들을 볼 수가 있다. 바로 한자 병용 정책의 실태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반만년의 오랜 역사 기간에 우리 민족이 창조하고 축적한 많은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것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과 글이다. 우리 선조들은 자기의 고유한 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민중의 언어생활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조선 민족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 활동의 제반 요구를 반영하여, 철두철미 자기 민족을 위하는 길에서 자기의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기에 힘을 다했다. 우리글은 놀랍게 발전하여 지금은 〈로마자 표기안〉까지 나왔고, 우리의 신문●잡지들은 명실공히 하나같이 가로 쓰어진 한글의 뿌리를 내리고 피땀 어린 정성으로 배달겨레 우리 민족의 얼을 빛내고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으뜸가는 우수한 우리 민족의 글에다, 어떤 이는 언어 변천의 일반적 원리를 깊이 생각지 않고 한자를 섞어 쓰자고 한다. 이는 조선말과 글의 옛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짧은 언어학적 견해로 우리글의 발생 발전 및 그 특성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문제의 고찰을 폭넓게 함이 없이 언어와 문자의 변화 발전하는 과정과 그 합법성에 대한 정확한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깊은 사고 없이 우리 글말의 고유한 민족 특질 특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한글 전용이 역사의 필연이란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자도 우리말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나의 생각과 우리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되고 있는 우리 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현재 사회에서 한자 혼용론과 한글 전용론의 대립은 단지 표면적인 의미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다. 단지 말글살이에 관한 순수 개념 논쟁으로 바라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다.

한글만을 쓰는 정책으로 의사소통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해묵은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다. 한글 전용은 국수주의적 응고집이며 비문화적이고 비역사적이라는 것이다.

한자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엄청난 소통 장애를 가져온다고 하였는데 소통 장애는 한글 탓일까. 세종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서로 통하게 하려고 새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였고 주시경 교수님은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한글로만 써 상하귀천이 다함께 보게 하려는 뜻을 내세웠다. 한자는 오랫동안 지배 계급이 지식의 폭넓은 유통을 가로막고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쌓아놓은 큰 장벽이었다. 소통에 큰 장애가 된 것은 한글이 아니라 한자였다. 아직도 한글을 '언문'으로 알고 한자에는 무슨 조화라도 붙은양 여길 게 아니다.

한자 병기는 곧 한자 혼용으로 가는 첫걸음이며, 이는 글 까막눈을 다시 생겨나게 만들고, 봉건 지배 계급의 상징을 되살리는 것이니 분명 국어 교육의 뒷걸음질이다. 독립문을 헐고 영은문을 다시 세우자는 망발이다. 또 초등 교육에서 복잡하고 수많은 한자를 낱낱이 배우고 하는 것 자체가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다.

1980년대에 시작된 급격한 한글전용 흐름을 '출판계, 언론계의 상업주의 논리와 교육계의 편의주의 논의가 맞물리면서 일어난 형상'이라고 보는 데서 한글문화의 대중화를 막아보겠다는 귀족주의적 오만함을 느낄 수 있다. 한글에는 문화가 있을 수 없다는 공연한 편견일 뿐이다. 한자를 '진서'라 받들고 우리말을 '방언'이라 하고 한글을 '언문'이라 불렀던 것이 죄다 이데올로기의 사물이다. 한글만을 써서 소통이 불편하다는 건 몇몇 기성세대가 인습을 고집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많은 문자학자들이 한글이 훌륭한 알파벳이라는 데 동의한다. 한자까지 빌려와 우리말을 적어야 한다면 알파벳으로서 한글은 불완전하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한글을 일본의 가나처럼 음절 글자로 쓰는 것이 된다. 한글이 훌륭하다는 말은 빈말이 된다. 글자살이에는 습관이 큰 구실을 한다. 문자 교육정책은 긴 눈으로 앞을 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과거의 인습에 매달리거나 여론에 휩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러는 한자를 가르치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기도 한다. 한자 문화에서 규범에 순응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말이 '인성교육'이자 실은 배우는 사람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전제되지 않은 일반적 주입으로 흐를 가능성이 더 크다. 개인이든 사회든 인습을 과감히 끊는 게 교육의 가장 중요

한 기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6.2. 한자폐지의 남은 문제

중국글자 섞어 쓰기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보아 이미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새말'을 애짓는 의식에서 큰 문제가 있고, 아직도 한자 배우기는 매우 대중적이고 한자폐지 반대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요해서 배운다, 한자 열풍」. 『조선일보』. 8.20)

이런 반대론은 문화현상을 보는 역사적 눈이 모자란 데서 오거나, 겨레문화 허무주의의 산물이다. 한글전용에 대한 만만찮은 저항이 반세기가 넘게 이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이에 대한 저항이 홀이름씨에서 나타났던 것은 우리의 말글의식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를 보여준다.

송민(전 국립국어연구원장) 님은 「국회의원의 한글 명패」(『어문생활』 제79호 2004.6)에서 국회의원의 이름을 우리글인 한글로 적기는 명분으로는 좋지만 한자로 적으면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있고, 동양 문화권의 언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름패를 한글로 적어서 얻는 가장 큰 이득은 제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자가 갖는 귀족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이 없는 한글은 민주주의시대에 잘 맞는다. 선거 때 표를 달라고 할 때에는 한글로만 쓰다가 국회의원이 되면 한자 명패를 써온 게 우리 정치인이다.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다가 당선되고 난 뒤에 다 잊어버리는 그들의 행동과 무척 닮았다.

선거 때, 한자교육을 위하여 한자를 새까맣게 섞어 쓰다가 당선된 뒤에도 한자 명패를 고집한다면 비록 어리석지만 그 용기만은 가상하다고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17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난 선거 때 여러 홍보물에 한자를 쓴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88%가 한글 이름패를 쓰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7.13) 나머지 12%의 국회의원은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다. 한자는 중국글자로서 단순히 사대주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민화의 도구였다. 거듭 말하거니와 한글사랑운동이 그냥 우리 글자이니까 써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뼈아픈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다. 한글은 겨레의 글자이기에 앞서 민중의 글자였다.

같은 이름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한자가 덜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굳이 한자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출신 지역구나 소속 위

원회에 따라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다. 한자를 알면,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는 데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한자를 아예 모르고 현대중국어를 배워도 좋다. 우리식 한자를 알아도 일본식으로 읽는 법을 따로 배워야 한다. 효율성 떨어지는 방법이다. 이런 효율성에 대한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겨레문화의 방향성이다.

송민님은 '동양문화권에서 고립'됨을 걱정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즉 중국이나 일본의 그늘 아래 겨레의 앞날을 파묻어서는 안 된다. 사대주의와 한문숭상이 가져온 엄청난 폐해를 깨닫고 겨레문화의 독자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신문의 이름을 생각해보라. 우리나라에는 신문 이름이 크게 '00일보'와 '00신문'으로 나뉜다. '일보'계열은 중국식 이름이고 '신문'계열은 일본식 이름이다. 그렇지만 우리식 이름은 아직 없다.

중국 것과 일본 것 다 들여다 뒤섞어 놓고는 동양문화권 것이라고 좋아할 것인가. 왜 우리에게는 이런 애지음의 문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한자문화권 또는 동양문화권에 속한다는 생각이 야말로 겨레문화의 아편이다. 낱 사람이나 겨레로서 남다른 개성이 없다면 어떻게 떳떳해질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라도 겨레문화의 창조성을 갉아먹은 중국문화와 비판적으로 맞섬으로써 이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이런 깨달음 없는 국어연구는 처음부터 크게 빗나간 것이다.

신라 경덕왕 때부터 땅 이름이 중국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 이름도 중국식이다. 일본도 한자를 쓴다고 하나 일본의 땅 이름과 사람 이름은 그들 나름의 특색이 있다. 우리의 한자 이름은 중국인과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일본 한시는 뜻으로 읽어 일본어가 되지만 조선 사람이 지었던 한시를 소리로 읽으면 중국어의 한 방언에 지나지 않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대만마저도 화교에게 우리의 홀이름씨가 중국식임을 들어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가르치고 있다. (화문 네트워크 교육원) 젊은이들이 아버지 이름을 한자로 적지 못한다고 신문에서 떠들던 때가 있었다. 전통문하를 핑계로 한글사랑운동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한밭"을 "대전"으로, "웃개"는 "상포"로 바꾸고 자랑으로 알아온 것이 이렇게 뒷뉘에 큰 부끄러움이 될 줄이다.

문제는 국립국어연구원장을 지낸 이마저도 국회의원의 이름패를 두고 중국글자로 쓰지 않는다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서울을 "漢城"으로 적는데 중국의 도시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서울시의 요구에도 중국은 아무런 반응도 없다. "漢江", "大漢門"도 잘못 풀이하기 쉽다. 이런 이름들에서 중국인들은 아직도 지난날의 위대했던 역사를 곱씹을 수도 있다.

한자가 많이 쓰임으로써 문제가 된 것은 우리 땅 이름만은 아니다. 중국 땅 이름에까지 한자를 끼워서 문제가 되었다. "北京"은 중국인에게 "베이징"이고 우리에겐

오랫동안 “북경”이었다. 그것은 “England”를 “잉글란드”(영국)와 “엥란트”(독일)로 다르게 소리 내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한글로만 글자살이를 한다면 “북경”이란 말은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땅 이름이나 사람 이름을 적는 데 한자를 끼워서는 안 된다. “장쩌민”으로 알려진 사람을 공연히 “강택민”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다.

말은 일차적으로 소리로서 있다. “Washington”을 “워싱턴”으로 적듯이 “上海”는 “상하이”로 적으면 된다. 그 사이에 전통적인 우리 한자음을 끼울 필요는 없다. 중국은 이제 우리에게 수많은 외국 가운데 한나라가 되어야 하며 특별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을 글자로 적게 된 것은 인류가 말을 갖고 나서 한참 뒤의 일이다. 대중이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역사에서 겨우 한 세대를 조금 넘어갈 뿐이다. 중국 땅 이름을 소리대로 적는 원칙은 고구려의 옛 땅에 해당되는 현대중국의 땅 이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나누고 역사적인 땅 이름만 과거의 한자음을 바탕으로 적는다.

″고구려는 압록강의 지류인 통자강 유역의 한런지방에 자리 잡았다. 건국 초기에 지안의 국내성으로 옮겼다. 지안에는 환도산성, 국내성, 장군총, 태왕비 등 유적이 옛 제국의 위용을 말하고 있다.″

“국내성”, “태왕비” 등은 인공적인 산물을 가리키기에 본꼴스런 홀이름씨에서 벗어난다. 중국이나 일본의 홀이름씨를 전통적인 한자음에 따라 적는다면 우리 문화는 한자의 굴레에 얽매이게 된다. 그곳의 소리를 바탕으로 적는 것은 말과 글자의 관계, 홀이름씨의 성격을 생각할 때 훌륭한 원칙이다.

어떤 개인의 유별난 취향이나 한글전용을 위해 홀이름씨를 현지의 소리대로 적는 원칙을 채택했다는 김민수 님의 비판 (「한자표기 원지음주의 문제」,『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2004. 여름호, 155-164쪽)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한자에는 무한한 조어력이 있다.」(『새국어생활』, 2004. 여름호, 54쪽)는 글에서는 글자 중심주의를 엿볼 수 있다. 한자 없이는 중국은 유럽처럼 여러 나라로 갈라졌을 것이다. 한자는 중화제국을 떠받치는 기둥이며 그것은 중화사상(유학)을 담고 있다. 아직도 한글전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국어학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중국문화의 수렁에 빠져 있는가를 말해준다.

한자에 대한 우리 의식은 우리가 중국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탓으로 중국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 중국에서는 한자가 맨 처음에 글자이면서 그림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자연스럽게 이름과 그 대상을 나누는 생각이 발달하지 않았다.

이론과 실천, 가족(효)과 국가(충), 사실(자연)과 가치(문화)를 나누는 전통마저도

중국에서는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름(중국적 전통에서는 홀이름씨나 두루 이름씨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 자체가 실재(實在)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적 전통에서는 개념의 지위에 관한 이름주의(유명론)가 낯설다.

웃어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도 이름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람을 나누는 전통이 없는 중국문화의 이런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름 말고도 호(號)를 필요로 했던 것도 중국인의 이런 말글의식의 산물이다. 그 뿌리는 바로 글자로서의 한자가 특수한 성격을 갖기 때문이었다. 중국문화는 일찍부터 인문화의 길을 갔다고 하지만 한자가 갖는 이런 원시적이고 주술적인 차원에서 끝내 헤어나지 못하였다. 사람의 이름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일이 유행하고 정치적 격변기마다 참언이 유행한 것도 중국문화권 안에서 이름(상징)과 실재를 나누지 않은 사고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인습이 이제는 회사 이름이나 아파트 이름에 미국식 이름 붙이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KB, KT, KT&G”와 같은 이름은 선진국 되기나 세계화를 핑계로 삼은 것인데, 한자식 사람 이름과 땅 이름을 갖게 된 것과 동일한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름은 신성하기보다는 부르기 좋고 정겹게 느껴져야 좋다. 쉬운 토박이말로 사람이름을 짓는다면 이름을 한글로 적는 데 대한 시비를 뿌리부터 해결할 수 있다. 이름에 대한 이런 생각에서 우리의 말글의 식에 한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언어학에서는 언어는 규칙의 체계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라는 관점이 우세하다. 오늘날 제대로 된 언어사전에서는 홀이름씨를 뺀다. 홀이름씨야말로 언어가 그냥 규칙의 체계일 수는 없다는 증거다.

홀이름씨에 연결하는 뜻은 사전에 규칙으로 정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험적 역사적 과정을 거쳐 연결된다. 홀이름씨는 한 겨레의 역사와 문화가 언어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갖는가를 보여준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낸 사전도 적지 않는 홀이름씨를 올리면서 『‘표준’국어대사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는 관료주의의 산물이다.)

중국문화권의 전통에서는 언어를 낱말 또는 낱말을 나타내는 글자의 모임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왔다. 이 글자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 글자가 생겨난 역사와 문화를 늘 상기시킨다. 이 글자는 의미 없는 형식적 부호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교육과 학문이란 중국고전 읽기였고, 그것을 읽기 위하여 『천자문』과 같은 책을 배운다면, 중국역사와 중국문화를 우리 역사와 문화보다 더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문숭상은 우리 역사를 사대주의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독립과 자주의 기상이 흐트러진 뒤에 결국 다가온 것은 망국이었다. 우리에게 중국글자는 사대주의와 봉건사회의 상징이며 더 나아가 일본에게 나라를 잃게 만든 망국의 글자다. 한글전용에 대한 저항이 이름에서 남아 있다는 것은 중국글자 때문에 우리의 말글의식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를 보여준다. (『말과 글』, 2004. 가을)

6.3. 한자병기론과 한글전용론

6.3.1. 한자병기론

① 한글만 썼을 때 의미혼란이 생김.

우리말 어휘 중 60%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고, 동음이의어가 많아 한글로만 표기할 경우 한참 생각해야 뜻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예) 공약(公約) / 공약(空約)

② 한자교육이 전통문화의 이해의 폭을 넓힘.

고전, 역사, 사회과학 등 전통 문화와 관련된 학문 연구에서 한자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유교의 예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예) 장유유서(長幼有序)

이렇듯 한글로만 표기할 때 보다 한자를 덧붙여 썼을 때 그 의미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③ 한글을 위해 한자가 필요함.

한글전용화도 한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다. 한자와 한글은 모두 가치가 있고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 예) (한자어-우리말) 생명 - 목숨 을 항상 바꿔 쓸 수는 없음.

④ 우리말에 부족한 표의적 기능을 한자로 보완.

한글은 우수한 표음문자이고 한자는 우수한 표의 문자이다. 이상적인 문자는 있을 수 없지만 이 둘을 함께 사용하면 가장 이상적인 문자 사용국은 있다는 가정 하에 우리 나라는 가장 이상적인 문자 사용국이 될 것이다.

⑤ 한글은 쉽고 한자는 어려운가?

한글은 초기에 깨우치기 쉽지만 공부할수록 어렵다. 예로 '투표율', '도덕률' / '로서', '로써'의 쓰임을 우리는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한글 또한 제대로 쓰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한자만 어려운 것이라 비판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 한자도 어릴 때부터 배웠다면 한글처럼 쉽게 쓸 수 있을 것이다.

⑥ 우리말과 한자어 나름의 가치가 있음.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때도 있고 한글이 더 용이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적절히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예) 차례차례 승차합시다. → 차례차례 탑시다. / 날짐승 → 조류

6.3.2. 한글전용

① 동음이의어는 문맥 안에서 구분가능.

글이란 낱말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문맥 안에서 그 구분이 명확히 된다.

예) 그의 공약은 공약이다.

② 정보화 시대에 한자는 큰 걸림돌.

컴퓨터로 한자를 바꾸려면 여러 단계의 조작을 거쳐야 한다. 이는 앞으로도 문서의 빠른 처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③ 한자병기가 전통문화의 이해를 돕는 것은 아님.

우리고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은 한문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한자병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④ 경제적 부담의 증가

한자병기를 함으로써 지면소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펄프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예)신문, 공문서

또한 한자교육의 중요성이 부각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한자교육을 위한 사교육비가 증가될 것이다.

⑤ 한자는 어려움.

중국이 문맹률 6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1%밖에 안 된다. 중국도 문맹률을 줄이기 위해 간자체를 이용하고 있다. 쉬운 우리말을 두고서 우리가 굳이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은가. 한자병기는 한자를 잘 하는 소수에게만 유리할 뿐 한글세대인 어린 학생, 젊은이, 교육받지 못한 계층에게는 불편함만 준다.

Ⅲ. 결론

언문일치운동은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언문일치운동이 국가와 민족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언문일치운동은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난 형성이다. 현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문일치의 문장은 근대화 과정에서 행해졌던 언문일치운동의 결과이다. 언문일치운동은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전환점은 물론이고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

국문론●국문운동은 한문으로 상징되는 중세적 질서체계의 전복을 목표로 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 '전복'의 사상은 동학으로부터 비롯되어 『독립신문』을 거쳐 애국 계몽기 신흥 지식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일관된 것이다. 이 '전복'의 사상은, 때로는 종교적 형태로, 때로는 정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국문론●국문운동은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압력으로 '계몽'●'자강', '애국'●'독립'의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 국문론●국문운동의 주체에 따라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특정한 전략적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언문일치로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국문론●국문운동이 지닌 전략적 속성,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문일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대적 주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한 것이 된다. 특히 신흥 지식인들의 지식의 원천이 대부분 일본이라는 점, 이에 따라 언문일치로의 움직임도 일본의 영향, 또는 일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근대적 주체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내재적 요인 보다 외래적 요인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주체가 타자의 존재를 설정하지 않고 발견되기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에는 그 타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우리를 주체로 호명(interpellation)할 수 있는 더 큰 주체로 존재할 수 있음을 잊고 지나칠 수 없다. 국문운동이나 언문일치의 과정이 문자와 문체의 정리와 통일을 통해 민족의 형성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근대성의 중요한 한 징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개화기 애국계몽기 지식인이 생각했던 바와 같이 언문일치를 단순한 표기체계의 변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어에 가까운 새로운 '문체'를 만드는 것으로 본다면, 반드시 언문일치로 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들을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한글을 위주로 하면서 한글로 적힌 한자어에 대해 괄호를 하고 해당 한자를 넣는 방식도 국한문혼용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한글전용체라고 파악하여야 한다. 괄호 안의 것은 협주(夾註:끼워 넣는 주)에 해당할 뿐이지 본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 간행된 『월인천강지곡』이 그러하거니와, 현대에서도 많이 보이는 이러한 문체는 그 기본정신이 한글전용에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한문혼용체는 순한문체에서 한글전용체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문체로서 언문일치(言文一致)를 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것인데, 우리의 근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문체이다.

한글 전용이란 우리가 글을 쓸 때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글로 표현을 하자는 것과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던 1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한글이 좀 더 대중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노력해 와서, 한자와 함께 쓰이는 많은 부분은 한글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그러한 운동이 한글 전용논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전용의 장점은 한글로만 모든 표기가 이루어진다면, 초등교육만으로도 읽고 쓰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즉, 쉽게 읽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점과 한글이 창제된 이후, 한글로 인해 많은 이들의 문맹률을 낮추었다는 점)과 정보의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한글전용으로 문자를 표기할 경우, 일일이 한자어를 한자를 찾아서 바꾸거나 써야만 하는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음),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표기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해질 것(국한문혼용으로 문자를 표기한 것보다 한글전용으로 표기된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좀 더 쉽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 종합하여 설명하자면 경제성 및 전산화 용이성 - 실제 사용 시 편의성, 입력 시간 단축 등의 이득이 있습니다.

문체의 발달과 국어●국문정리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개화기 국어●국문운동의 양상과 그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5장에서 본격적으로 개화기 국어●국문운동의 전개 양상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1에서는 국어●국문운동과 문체의 발달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이 시기의 국어●국문운동은 이봉운이나 주시경의 경우에서 보듯이 애국기몽운동의 일환이었다.

신문인 경우에는 『독립신문』이 국문체로 발간한 이후 『매일신문』, 『경성신문』, 『뎨국신문』등이 국문체로 간행됨으로써 국문 전용으로 문체발전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황성신문』, 『대한매인신보』등의 국한문 혼용 간행으로 국한문체가 우세해졌다. 하지만 『대한매일신보』의 경우에는 민중의 독자를 의식하여 국문판으로도 발간하였다.

잡지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국한문혼용을 채택하였다.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에는 국문체를 채택하기도 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들도 국한문체가 일반적이었다.

관용 공문인 경우에는 칙령에 의해 처음에는 국문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으나 나중에는 국한문체가 일반화되었다. 1908년 2월 6일 『官報』(3990호)에 실린 『官廳事項』은 그 무렵의 관용 공문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데, 국한문체로 공문서의 형

식을 통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소설의 경우, 장편소설은 국문체가 일찍 확립되었으나, 단편소설은 국한문체로 쓰이다가 1924년 이후에야 국문체로 확립되는데, 이는 단편소설이 西歐文學에서 들어온 새로운 형태로서 한국 소설의 전통과 잘 연결되지 않았고, 그 압축된 형식에는 국한문체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듯하다.

5.2에서는 정서법의 확립과 국어•국문정리운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 이봉운은 『국문정리』를 통하여 자모의 理致와 음의 淸濁, 음의 高低, 발음기호의 차이점을 분명히 파악하여 일상생활에 활용하기를 바라는 의도로 책을 저술하였다.

(2) 윤치호는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 국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문옥편을 편찬하고자 하였다.

(3) 주시경은 국문 사용을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였다.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存否와 盛衰를 좌우한다고 보아 國語•國文普及活動에 앞장섰으면, 통일된 표기법을 이루기 위해 정서법 확립을 위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4) 1907년 설립된 국문연구소는 1909년까지 약 2년 반 존속되어『國文硏究議定案』이라는 제목으로 통일된 보고서를 마련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언문일치운동은 사회발전 과전 중에서 일부분 역사적 전통문화를 잃어버리지만 사회문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시기중에 반대 사람 있고, 한자를 계속 사용 제창하는 사람도 있고, 국한혼용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최중 결국은 한글전용을 이겼다. 지금 신문 잡지 소설 교과서 등 문학 분야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과 글을 전부 다 언문일치운동의 결과 있다. 언문일치운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대체가 없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영환 (2012). 『한글 철학』. 한국학술정보.

강신항 (1992). 『國語學史』. 보성문화사.

김민수 (1982). 『신국어학사』. 일조각.

김형규 (1984). 『國語史槪要』. 일조각.

金敏洙 (1964). 『韓國語學史』.一潮閣.

金性洙 (1980). 『鄕歌 및 韓國借字考』 청록출판사.

신채호 (1908). 『文法을 宜統一』, 『대한매일신보』.

유길준 (1985). 『西遊見聞 序』, 『西遊見聞』, 交詢社.

유창균 (1987). 『국어학사』, 형설출판사.

이기문 (1970). 『국한문체와 국문체의 갈등』,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이기문 (1984). 『開化期의 國文使用에 관한 硏究』, 한국문화.

이승교 (1908). 『國漢文論』, 『서북학회월보』.

이응호 (1994). 『갑오경장과 어문정책』, 『새 국어생활 4 -4』, 국어국립연구원.

李薺鏡 (1908). 『國文과 漢文의 過渡時代』, 『太極學報』 21호.

李秉根 (1978). 『開化期의 語文政策과 表記法問題』, 韓國學報.

정대림 (1991). 『한국 고전문학비평의 이해』, 태학사.

주시경 (1976). 『국문론』, 이기문편, 『주시경 전집』 (상), 아세아문화사.

주시경 (1903). 『自國語文』, 『國語文典音學』, 박문서관.

주시경 (1907). 『必尙文言不修之禍』, 『황성신문』.

趙東一 (1992). 『韓國文學通史4』, 知識産業社.

최남선 (1973). 『時文讀本』, 『육당 최남선 전집』, 현암사.

崔埈 (1960). 『韓國新聞史』, 일조각.

2.논문

강영선 (2007). “개화기 국어●국문운동의 양상과 특징”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고영근(1983a). “開化期의 國語硏究團體와 國文普及及活動-『한글모죽보기』를 중심으로”『한국학보』30. 일지사.

고영근(1938b). “개화기의 한국 어문운동-국한문혼용론과 한글전용론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25집.

구인모 (1998). “국문운동과 언문일치” 國語國文學 論文集 第18輯

김미형 (2004). “한국어 언문일치의 정체는 무엇인가?”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김민수 (1962). “周時經의 業績-周時經論을 위한 序論” 『국어학』 제1집. 국어학회.

김병학 (1982). “개화기 국어교육적 문화운동 연구-諸 新聞記事를 中心으로” 『한국언어문학』 제21집. 한국언어문학회.

김채수 (2002). “한국과 일본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의 실상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글로벌 일본 연구원.

金寶垠 (2002). “韓國과 日本의 言文一致運動- 근대의 언문 일치 운동을 중심으로” 『일본학보』,(50), 2002.3, 1-12 .

노연숙 (2007). “개화계몽기 국어국문운동의 전개와 양상- 언문일치(言文一致)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0.

백채원 (2014). “20세기 초기 자료에 나타난 ‘言文一致’의 사용 양상과 그 의미”국어국문학회.

송철의 (2004).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운동과 어문정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한국문화)

신용하 (1977). “周時經의 愛國啓蒙思想” 『한국사회학연구』 제1집.

이기문 (1976). “周時經의 學問에 대한 새로운 理解” 『한국학보』5. 일지사.

이기문 (1984). “周時經의 國文使用에 관한 硏究” 『한국문화』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이병근 (1978). “愛國啓蒙主義時代의 國語觀-주시경의 경우”『한국학보』12. 일지사.

이응호 (1980). “《조선어학회》의 창립과 그 업적”『어문학』제40집. 한국어문학회.

최관진 (2003). “어문정책과 한문교육정책의 변천 연구-開化期부터 日帝强占期까지” 『청람어문교육』2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허재영 (2011). “근대 계몽기 언문일치의 본질과 국한문체의 유형” 한국어문학회.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근대 한국의 언문일치운동 연구

LIANG LIYE

부경대학교대학원신문방송학과

요약

언문일치운동은 사회의 발전과정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언문일치운동이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일반생활에도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언문일치운동이 한국에서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1910년대 후반이었다. 당시의 언문일치운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글로 적는 말(文語)을 입으로 하는 말 (口語) 에 일치시키려 했던 운동을 가리킨다. 그러한 운동을 한 결과 현재 우리가 말하는 언어란 말과 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문일치의 문장은 근대화 과정에서 행해졌던 언문일치운동의 결과를 취해진 것으로서 글(文)보다는 말(言) 중심의 언어관에 입각해 확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언문일치운동은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난 형성이다. 한국과 중국으로 시야를 한정해 보더라도 근대화운동, 국문운동, 백화문운동 등 근대 국민국가의 의식을 형성하는 주요한 기점에서 언문일치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문 몇 잡지 등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자료에 사용된 '言文一致'의 사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언문일치'가 지닌 의미를 밝힌 연구이다. 또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행해졌던 언문일치운동은 구체적으로 서술했고 그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言文一致운동을 분석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